紀行
述懷

杜詩 三

分類杜工部詩卷之二

紀行下 律詩三十七首

去蜀

五載客蜀郡一年居梓州 다ᄉᆺ 히ᄅᆞᆯ 蜀郡에 나그내 ᄃᆞ외오 ᄒᆞᆫ 히ᄅᆞᆯ 梓州ㅣ 사로라 如何關塞阻轉作瀟湘遊 此言不得歸蜀ᄒᆞ야 向瀟湘也ㅣ라 ○ 엇디 關塞ㅣ 阻隔ᄒᆞ야 도ᄅᆞ혀 瀟湘애 노로ᄆᆞᆯ 짓거니오

萬事已黃髮殘生隨白鷗 萬事애 ᄒᆞ마 늘거 머리 누르도소니 衰殘ᄒᆞᆫ 人生애 白鷗ᄅᆞᆯ 조차 ᄃᆞᆫ니노라 安危大臣在何必淚長流

言叱蕃ㅣ入寇ᄒᆞ나郭子儀諸公ㅣ可恃ᄒᆞ니라○危亂올便安케ᄒᆞᆯ大臣ㅣ인ᄂᆞ니나ᄂᆞᆫ엇디구틔여눈므를기리흘리리오

○恨別

洛城一別四千里胡騎長驅五六年洛城ᄋᆞᆫ洛陽ㅣ라○洛城올ᄒᆞᆫ번여희요니머로미四千里로소니胡騎ᄂᆞᆫ기리돌여ᄆᆞᆯ외오미다엿ᄒᆡ로다

草木變衰行劍外兵戈阻絕老江邊草木ㅣ攺變ᄒᆞ야衰殘ᄒᆞ거ᄂᆞᆯ劍閣밧긔와너노니干戈애길히벙으러그츠서ᄀᆞᄅᆞᆷᄀᆞᅀᅵ와늘그노라

思家步月清宵立憶弟看雲白日眠지블ᄉᆞ랑

ᄒᆞ야셔ᄃᆞ래걷니ᄆᆞᆯᄀᆞᆫ바ᄆᆡ셧고아ᅀᆞ랑ᄒᆞ야구루믈보고ᄇᆞᆯᄀᆞᆫ나래조오노라 聞

道河陽近乘勝司徒急爲破幽燕 乘勝요乘戰勝之勢也ㅣ니時예司徒李光弼ㅣ敗思明於河陽ᄒᆞ니라幽燕요思明의窟穴ㅣ라○河陽애

요ᄉᆞ이사홈乘勝호믈니ᄅᆞ거ᄂᆞᆯ듣노니司徒ㅣᄲᆞᆯ리爲ᄒᆞ야幽燕ᄋᆞᆯ헤티리로다

遊子 甫ㅣ自謂라

巴蜀愁誰語吳門興杳然 甫ㅣ嚴從成都ᄒᆞ야欲南下吳也ㅣ라○巴蜀애셔시름ᄒᆞᆫᄃᆞᆯ누ᄃᆞ려말ᄒᆞ료吳門에가고져ᄒᆞ논興ㅣ아ᅀᆞ라ᄒᆞ도다 九

江春草外三峽暮帆前 九江三峽요南ᄋᆞ로ᄂᆞ려갈제ᄅᆞ니가논

㣄히라○九江요봄맔ᄇᆞ기오
三峽오ᄂᆞ졋빗矣알ᄑᆡ로다 嚴就成都卜
休爲吏部眠 嚴君平ㅣ賣卜成都ᄒᆞ니라畢
卓ㅣ爲吏部郞ㅣ러니比舍애
釀熟이어ᄂᆞᆯ卓ㅣ盜飮ᄒᆞ다가爲掌酒者의
所縛ᄒᆞ니라此ᄂᆞᆫ甫ㅣ欲休爲酒而眠ᄒᆞ야
以爲留滯而有逍遙塵外ᄒᆞ야以求長生之
術故로有下句ᄒᆞ니라○成都애나아가셔
占卜ᄒᆞ믈아쳐노니吏部의술
먹고조오롬도ᄒᆞ디마로리라 蓬萊如可到
衰白問群仙 蓬萊예可히갈딘댄親ᄒᆞ
야머리셰요몰맔仙人ᄃᆞ려
무로
리라

、行次鹽亭縣ᄒᆞ야聊題四韻ᄒᆞ야奉簡嚴遂

州]蓬州二使君과諮議諸昆季ᄒᆞ노라

馬首見鹽亭高山擁縣青 ᄆᆞᆯ머리예 鹽亭縣을 보니 노ᄑᆞᆫ 뫼히 ᄀᆞ올ᄒᆞᆯ ᄢᅳ려 퍼러ᄒᆞ얏도다

雲溪花淡淡春郭水泠泠 泠泠ᄋᆞᆫ 水聲ㅣ라○구룸 ᄭᅵᆫ 시내 ᄒᆡᆫ 고지 淡淡ᄒᆞ얏고 봆 城郭ᄋᆞ 므리 泠泠ᄒᆞ도다

全蜀多名士嚴家聚德星 名士德星ᄋᆞᆫ 皆美嚴氏ᄒᆞ다 陳寔ㅣ 與諸子姪로 造荀淑討論이어늘 德星ㅣ 聚ᄒᆞ니라○오ᄂᆞᆫ 蜀애 일훔난 士ㅣ 하니 嚴氏ㅅ 지븨 德星ㅣ 모ᄃᆞᆺ도다

長歌意無極好為老夫聽 老夫ᄂᆞᆫ 甫ㅣ 自謂라○긴 놀애예 ᄠᅳ디 ᄀᆞ업스니 됴히 나ᄅᆞᆯ 為ᄒᆞ야 드르라

自閬州領妻子却赴蜀山行三首

汨汨避群盜悠悠經十年 汨汨은疾流皃ㅣ니以喩行之疾ᄒᆞ니

다○汨汨히뭀盜賊을避ᄒᆞ야ᄃᆞᆫ뇨니悠悠히열ᄒᆡ디나거다 不成向南國

復作遊西川 南國을向ᄒᆞ야가ᄆᆞᆯ일우디몯ᄒᆞ고任西川에노ᄅᆞᄆᆞᆯ짓노라

物役水虛照魂傷山寂然 水虛照ᄂᆞᆫ言身爲物役而水ㅣ徒相

照ᄒᆞ니不得遊賞也ㅣ라○物에브리여ᄃᆞᆫ뇨매므리虛히비취엿도소니넉슬슬호니

외히피오ᄒᆞ얏도다 我生無倚着盡室畏途邊 畏途ᄂᆞᆫ道路ㅣ

盜賊險阻也ㅣ라○내브든ᄃᆡ업서지비가ᄆᆞ의여ᄂᆞᆫ길ᄀᆞᅀᅵᄃᆞᆫ니노라

長林偃風色回復意猶迷 回復ᄋᆞᆫ 謂自閬ᄋᆞ로 還蜀ㅣ라 意猶迷ᄂᆞᆫ 수프리 ᄇᆞᄅᆞ매 기우러지니 비 봄과 다ᄅᆞᆯ시라라 ○ 긴 수프리 ᄇᆞᄅᆞ매 기울ᄒᆞ야시니 도라올 제 ᄠᅳ디 오히려 어즐ᄒᆞ도다

杉裛翠微潤馬銜青草嘶 裛ᄋᆞᆫ 與浥同ᄒᆞ니 潤也ㅣ라 山不及上曰翠微라 ○ 오ᄉᆞᆫ 翠微人 氣運에 저저 潤ᄒᆞ고 ᄆᆞᄅᆞᆫ 프른 프를 머구머셔 우놋다

棧懸斜避石橋斷都尋溪 棧ᄋᆞᆫ 閣道ㅣ라 ○ 棧道ㅣ ᄃᆞᆯ연ᄂᆞᆫ ᄃᆡ란 비스기 돌ᄒᆞᆯ 避ᄒᆞ고 ᄃᆞ리 그츤 ᄃᆡ란 도ᄅᆞ혀 므를 차자 가ᄂᆡ노라

何日兵戈盡飄飄愧老妻 어느 나래ᄋᆡ 兵戈ㅣ 다ᄋᆞ려뇨 飄飄히 ᄃᆞᆫ뇨ᄆᆞᆯ 늘근 겨지블 븟그리노라

行色遞隱見人煙時有無 遞隱見ᄋᆞᆫ 山有高下ᄒᆞ고 林有蔽虧ᄒᆞᆯᄉᆡ 行色ㅣ 或現或隱ㅣ라 ○ 녀ᄂᆞᆫ 비ᄎᆞᆫ 서로 수므락 나락ᄒᆞᄂᆞ니 사ᄅᆞ미 집 시ᄂᆞᆫ 時로 이시락 업스락ᄒᆞ놋다

僕夫穿竹語稚子入雲呼 죵ᄃᆞᆯᄒᆞᆫ 대수ᄋᆞᆯ 들위기 말ᄒᆞ거ᄂᆞᆯ 져믄 아ᄃᆞᄅᆞᆫ 구룸ᄭᅴ 더 드러가셔 브르놋다

轉石驚魑魅拜弓落狖鼯 拜ᄋᆞᆫ 彈也ㅣ라 狖ᄂᆞᆫ 猿屬ㅣ오 鼯ᄂᆞᆫ 鼠也ㅣ라 ○ 돌ᄒᆞᆯ 구우려 魑魅ᄅᆞᆯ 놀래오 화ᄅᆞᆯ ᄡᅡ 狖와 鼯와ᄅᆞᆯ 디요라

眞供一笑樂似欲慰窮途 ᄒᆞᆫ번 우어 즐교ᄆᆞᆯ 眞實로 供進ᄒᆞᄂᆞ소니 어려운 길헤 ᄃᆞᆫ뇨ᄆᆞᆯ 慰勞ᄒᆞᄂᆞᆫ ᄃᆞᆺ도다

渝州候嚴六侍御不到先下峽 時예 甫ㅣ 在渝州ᄒᆞ야 待侍御ᄒᆞ다가 不到ㅣ어ᄂᆞᆯ 先下峽ᄒᆞ다

聞道乘驄發沙邊待至今 乘驄ᄋᆞᆫ 漢桓典ㅣ 爲侍御史ᄒᆞ야 乘驄馬故로 比嚴侍御ᄒᆞ니라 ⊙ 驄馬ᄅᆞᆯ 타 發行ᄒᆞ다 니ᄅᆞ거ᄂᆞᆯ 듣고 沙邊에 셔 이제 니르도록 기ᄃᆞ로라

不知雲雨散虛費短長吟 雲雨散ᄋᆞᆫ 喩相別也ㅣ라 短長吟ᄋᆞᆫ 글으퍼셔 기들올지라 ⊙ 구룸과 비와 ᄀᆞ티 헤여딜고 돌아 더 몯ᄒᆞ야 뎌르며 긴 으프믈 虛費히 호라

山帶烏蠻闊江連白帝深 烏蠻ᄋᆞᆫ 在嶲州ㅣ오 白帝城ᄋᆞᆫ 指夔州ᄒᆞ다 ⊙ 뫼ᄒᆞᆫ 烏蠻ᄋᆞᆯ ᄯᅴ여 어위오 ᄀᆞᄅᆞᄆᆞᆫ 白帝ᄅᆞᆯ 니어

깁도다 船過一柱觀留眼共登臨 一柱觀ᄋᆞᆫ在荊州ᄒᆞ니라

留眼ᄋᆞᆫ 보ᄂᆞᆫ 景物을 두고 니거든 侍御ㅣ 와 보면 내 누늘 두고 가논 고디라 ⊗ ᄇᆡ 타 一柱觀ᄋᆞ로 디나가며 셔 누늘 머믈읫 다 몯 登臨케 ᄒᆞ노라

船過夔州郭宿ᄒᆞ야 雨濕不得上岸ᄒᆞ야 別王十二判官ᄒᆞ노라

依沙宿舸船石瀨月娟娟 娟娟ᄋᆞᆫ好也ㅣ라 ⊖ 믈ᄀᆞᅀᆞᆯ 브텨 ᄇᆡ예셔 자니 돌 잇ᄂᆞᆫ 여흐레 ᄃᆞᆯ비치 됴토다 風起春燈亂江鳴夜雨懸 ᄇᆞᄅᆞ미 니니 봄 브리 어즈럽고 ᄀᆞᄅᆞ미 우니 밤비 드리엿도다 晨鐘雲外

濕勝地石堂煙 ◐ 石堂은夔州ㅅ됴ᄒᆞᆫᄯᅡ히라새뱃붑소리ᄂᆞᆫ구룸밧긔

져젓고됴ᄒᆞᆫᄯᅡᄒᆞᆫ石堂ᄂᆡ仙ᄂᆡ로다 柔櫓輕鷗外含悽覺汝賢

櫓ᄂᆞᆫ用以進船者ㅣ라汝ᄂᆞᆫ指鷗ᄒᆞ다言船過泛鷗之外ᄒᆞ야含情而羨其閑也ㅣ라 ◑

부드러운비치가비야온골며기반기로소니슬픈ᄠᅳ들머거셔네어디로몰아노라

大曆三年春에白帝城에放船ᄒᆞ야出瞿

塘峽ᄒᆞ노라 久居夔府ᄒᆞ다가 將適江陵ᄒᆞᆯ시

漂泊有詩ㅣ니凡四十韻이라

老向巴人裡今辭楚塞隅 巴與楚ᄂᆞᆫ皆指夔州ᄒᆞ니라 ○ ᄂᆞᆯ거

巴人ᄉ소개向ᄒᆞ야왓다니 이제楚塞ᄉ모ᄒᆞᆯ여희노라 入舟翻不樂觧
纜獨長吁 翻不樂ᄋᆞᆫ思歸之久에得舟則快 矣로ᄃᆡ臨別難爲情也ㅣ라長吁
ᄂᆞᆫ自傷流離也ㅣ라㊀비예드러도ᄅᆞ혀즐 기디아니ᄒᆞ고비ᄆᆡᆫ주ᄅᆞᆯ글러ᄒᆞ오아기라
嗟嘆ᄒᆞ 노라 窄轉深啼狖虛隨亂浴鳧 조ᄇᆞᆫᄃᆡ기 픠셔우ᄂᆞᆫ
납ᄋᆞᆫᄂᆞᆫᄃᆡ로올마가고虛ᄒᆞᆫᄃᆡ어즤 러이沐浴ᄒᆞᄂᆞᆫ올히믈조차가노라 石苔凌
几杖空翠撲肌膚 空翠ᄂᆞᆫ靄空翠蔓ㅣ라㊁ 돌햇이슨几아막다예믄
거ᄂᆞᆯ虛空앳프ᄅᆞᆫ너ᄎᆞ 른肌膚에다티놋다 疊壁排霜劒奔泉濺
水珠 疊疊ᄒᆞᆫ石壁ᄋᆞᆫ혜연갈히버렛고 ᄃᆞᆮᄂᆞᆫ셔믄믌구스리ᄀᆞᆮ기놋다 杳冥

藤上下濃淡樹榮枯 아ᄃᆞᆨᄒᆞᆫ ᄃᆞᆺ 너추른 오ᄅᆞ며 ᄂᆞ렷고 ᄃᆞᆺ거우며 열온 나못 비츤 닙 퓌니와 이우니로다

神女峯娟妙昭君宅有無 神女峯ᄋᆞᆫ 在巫山ᄒᆞ고 昭君宅ᄋᆞᆫ 在歸州ᄒᆞ다 有無ᄂᆞᆫ 言年歲久遠ᄒᆞ야 바로 모ᄅᆞᆯ시라 ○神女峯ᄋᆞᆫ 됴ᄒᆞ며 微妙ᄒᆞ고 昭君宅ᄋᆞᆫ 잇ᄂᆞᆫ 동 업슨 동ᄒᆞ도다

曲留明怨惜夢盡失歡娛 昭君이 嫁匈奴ᄒᆞ야 彈琵琶曲ᄒᆞ야 以寄怨恨ᄒᆞ니 此ᄂᆞᆫ 承昭君之語ᄒᆞ다 楚人襄王이 夢與神女로 遇ᄒᆞ야 歡樂ᄒᆞ니 此ᄂᆞᆫ 承神女之語ᄒᆞ다 ○놀애 머므러시니 怨惜호미 번드ᄒᆞ고 ᄭᅮ미 ᄆᆞᄎᆞ니 歡娛ᄅᆞᆯ 일토다

擺闔盤渦沸攲斜激浪輸 擺ᄂᆞᆫ 開오 闔ᄋᆞᆫ 閉라 渦ᄂᆞᆫ 水回也ㅣ라 輸ᄂᆞᆫ 瀉也ㅣ라 ○

혜여디락모ᄃᆞ락ᄒᆞᄂᆞᆫ 믌뉘누리ᄂᆞᆫ 붑괴오 기옷효ᄂᆞ솟ᄂᆞᆫ 믌겨른 소다디여 흘러가놋다

風雷纏地脉永雪曜天衢ᄒᆞ고 風雷ᄂᆞᆫ言氷聲ᄒᆞ고氷雪ᄋᆞᆫ言波浪ᄒᆞ다 ○ ᄇᆞᄅᆞᆷ과우레ᄂᆞᆫ使脉애버므럿고 어름과눈과ᄂᆞᆫ 하ᄂᆞᆳ기레 비취엿도다

鹿角真走險狼頭如跋胡 鹿角狼頭ᄂᆞᆫ二灘名ㅣ라 詩예狼跋其胡ㅣ라ᄒᆞ니 跋ᄋᆞᆫ躐也ㅣ오 胡ᄂᆞᆫ領下懸肉ㅣ라 此ᄂᆞᆫ形容二灘之險ᄒᆞ니라 ⊙ 鹿角ᄋᆞᆫ 真實 三險ᄒᆞᆫ 거시ᄃᆞ랏고 狼頭ᄂᆞᆫ 텩아래 고기믈 드듸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惡灘寧變色高臥負微軀 寧ᄋᆞᆫ猶不寧也ㅣ라 ○ 모딘 여ᄒᆞ레 엇디 顔色ᄋᆞᆯ 變티 아니ᄒᆞ리오 노피 누워셔 져근 모ᄆᆞᆯ 져ᄇᆞ료라

書史全傾撓裝囊

半壓濡書吏ᄂᆞᆫ 다 기우러 어즈럽고 몯근 잘ᄋᆞ 半만 지즐여 저젓도다 生涯
臨臬兀死地脫斯須臬兀ᄋᆞᆫ 不安皃ㅣ라 斯須ᄂᆞᆫ 아니한 더디라 ◉
사라쇼매 어려운 디로 臨ᄒᆞ니 주글 ᄯᅡ홀 아니한 ᄉᆞ이예 버서나롸 不有平川
決焉知衆壑趨此ᄂᆞᆫ 言衆壑之水ㅣ 趨會ᄒᆞ야 為平川也ㅣ라 ○ 平ᄒᆞᆫ 므
리 혀여디미 잇디 아니ᄒᆞ면 잇디 여러 곬므리 모다 소몰 알리오 乾坤靈漲
海雨露洗春蕪하ᄂᆞᆯ과 ᄯᅡ콰ᄂᆞᆫ 을믈 연ᄂᆞᆫ 바ᄅᆞᆯ래 어득ᄒᆞ얫고 비와 이슬
와ᄂᆞᆫ 봄거츤 프를 싯놋다 鷗鳥牽絲颺驪龍濯錦紆此ᄂᆞᆫ 言鷗
羽ㅣ 如絲之白ㅣ오 驪龍之光ㅣ 如錦也ㅣ라 ○ 鷗鳥ᄂᆞᆫ 시를 잇거어 부치고 驪龍ᄋᆞᆫ 錦

을시서범으렷도다

落霞沉綠綺殘月壞金樞 金樞ᄂᆞᆫ以金作户樞ㅣ니其形ㅣ圓也ㅣ라○디ᄂᆞᆫ雲霞ᄂᆞᆫ프른기비듬ᄂᆞᆫ듯고殘缺ᄒᆞᆫᄃᆞ로金지도리헌ᄃᆞᆺᄒᆞ도다

泥筍苞初荻沙茸出小蒲 筍오竹萌ㅣ라苞ᄂᆞᆫ叢生ㅣ라荻요葭ㅣ리茸오草生見ㅣ라○ᄒᆞᆯ기但但지돈ᄂᆞᆫ거ᄉᆞᆫ치엄마리로다나고모래예다복다복ᄒᆞ번ᄒᆞᆫ근졸릐나ᄂᆞᆺ다

鳫兒爭水馬燕子逐檣烏 水馬ᄂᆞᆫ生水中ᄒᆞ、ᄂᆞ니頭如馬形ᄒᆞ、니長ㅣ五六寸이라檣요掛帆木시니읏그테刻爲烏形ᄒᆞ、야以占風ᄒᆞ、ᄂᆞ니라○그려기삿기ᄂᆞᆫ水馬ᄅᆞᆯᄃᆞ토아먹고져비ᄂᆞᆫ짐대예가마괼조차ᄂᆞ니ᄂᆞ다

絕島容煙霧環洲納曉晡 納曉晡ᄂᆞᆫ

洲渚ㅣ回環而舟不進也ㅣ라 晡ᄂᆞᆫ 申時라 ○먼 셔ᄆᆞ너와 안개ᄉᆞ이예 드릇도소니 혓

돈 믌ᄀᆞᅀᆡ 새배로 나조ᄒᆡ ᄃᆞ외도록 드러쇼라 前聞辨陶牧轉眄拂

宜都 ○陶牧ᄋᆞᆫ 地名ㅣ오 宜都ᄂᆞᆫ 縣名也ㅣ라 알ᄑᆡ 듣던 ᄯᅡᄒᆞ ᄯᅡᆫ 陶牧ᄋᆞᆯ ᄀᆞᆯᄒᆡ오 도

라보아 宜都ᄅᆞᆯ 별텨가노라 縣郭南畿好津亭北望孤 縣郭

ᄋᆞᆫ 松滋縣ㅣ라 孤ᄂᆞᆫ 遠也ㅣ라 ○ᄀᆞ올 城郭ᄋᆞᆫ 南녁 ᄯᅡᄒᆡ 됴ᄒᆞ니 ᄂᆞ룻 亭子애셔 븍녀글

ᄇᆞ라보미 머도다 勞心依憩息朗詠劃昭蘇 劃ᄋᆞᆫ 開豁之意

라 昭ᄂᆞᆫ 明也ㅣ오 蘇ᄂᆞᆫ 死而更生也ㅣ라 ○ᄆᆞᅀᆞᆷ이 곳바예ᄅᆞᆯ 브터셔 쉬며 쉬오ᄆᆞᆫ 기이

ᄑᆞ니 ᄆᆞᅀᆞ미 훤ᄒᆡ 훤ᄒᆞ야라 意遣樂還笑衰迷賢與愚 此ᄂᆞᆫ

言人情ㅣ歷艱險則悲憂ᄒᆞ고逢廣平則樂
矣ᄒᆞᄂᆞ니身雖衰老ᄒᆞ나豈復論賢愚而不
樂乎ㅣ리오○ᄠᅳ들펴셔즐겨도로운노
니비록늘그나어딜며어리믈모ᄅᆞ노라飄
蕭將素髮汨沒聽洪鑪ㅣ飄蕭ᄂᆞᆫ風吹素髮皃
ㅣ라汨沒ᄋᆞᆫ猶沈滯
也ㅣ라洪鑪ᄂᆞᆫ指天地造化ᄒᆞ니聽洪鑪ᄂᆞᆫ
言順受天命ㅣ라○飄蕭ᄒᆞᆫ힌머리ᄅᆞᆯ가져
고ᄢᅵ뎌슈몰洪
鑪ᄅᆞᆯ듣노라丘壑曾忘返文章敢自誣此ᄂᆞᆫ
甫ㅣ言常志在山林ᄒᆞ니豈以能文章으로
敢誣於自己리오ᄒᆞ니自謙也ㅣ라○丘壑
애도라가몰실즉니즈리아文章ᄒᆞᆫ此生遣
노라ᄒᆞ야구티여내모몰소기리아
聖代誰分哭窮途이ᄂᆞᆫ聖明時로만나니뉘
구위실티말오려ᄒᆞ리오

○이生애聖代롤만나니뉘窮達
래셔우루믈命分ㅣ라너기리오
臥疾淹為客蒙恩早側儒
厠오間厠ㅣ라○病ᄒᆞ야누
위오래나그내도외요니恩
惠롤님ᄉᆞ와일션비
귀리예잇거도뇨라
廷爭酬造化樸直乞江湖
甫ㅣ廷論房琯을不宜廢라ᄒᆞ니此ㅣ酬
君王의顧遇之恩也ㅣ라下句ᄂᆞᆫ婉辭以致
怨也ㅣ라乞ᄋᆞᆫ去異切ᄒᆞ니與也ㅣ라○廷
爭ᄒᆞ야造化를갑ᄉᆞ오니樸質愚直ㅣ라ᄒᆞ
사江湖롤
주시다
灩澦險相迫滄浪深可逾
灩澦堆
ᄂᆞᆫ在夔
州ㅣ라○灩澦ㅣ險ᄒᆞᆫ뒤서르逼迫ᄒᆞ
니滄浪ㅣ기픈뒤可히너머가리로다
浮名尋已已嬾計却區區
浮生앳功名을ᄒᆞ마말
며마로리니게으른혜

아료모도ᄅᆞ허 져기이셔라 喜近天皇寺先披古畫圖 天皇寺ᄂᆞᆫ在荊州ᄒᆞ니寺有張僧繇의畫孔子와十哲像ᄒᆞ니라○天皇寺ㅣ갓가와오ᄂᆞᆯ 깃게ᄒᆞ노니몬져녯그리ᄆᆞᆯ 혜텨보리라 應經帝子渚同泣舜蒼梧 帝子渚ᄂᆞᆫ二妃泣舜處ㅣ니即湘江ㅣ라蒼梧ᄂᆞᆫ葬舜處也ㅣ라◐당당이帝子ㅅ믈ᄀᆞᄋᆞᆯ디나가舜ᄋᆞᆯ蒼梧애ᄒᆞᆫ가지로울리로다 朝士兼戎服君王按湛盧 按ᄋᆞᆫ撫也ㅣ라湛盧ᄂᆞᆫ劍名ㅣ라此與下聯ᄋᆞᆫ皆言安史之亂ᄒᆞ니라○朝官ㅣ兵戎衣服ᄋᆞᆯ兼ᄒᆞ야니벗고君王ㅣ갈ᄒᆞᆯ자ᄇᆞ시놋다 旄頭初俶擾鶉首麗泥塗 旄頭ᄂᆞᆫ胡星ㅣ라俶擾ᄂᆞᆫ始亂也ㅣ라鶉首ᄂᆞᆫ秦ㅅ分野ㅣ라麗ᄂᆞᆫ

附會也ㅣ니此ᄂᆞᆫ言胡虜ㅣ始亂而長安ㅣ陷沒故ㅣ라○梳頭ㅣ커엄비르수어즈러

우니鷄首ㅣ죤ᄒᆞᆯ기버므러디도다 甲卒身雖貴書生道固殊

此ᄂᆞᆫ言喪亂에甲卒ㅣ有得爲將帥而書生ㅣ亦有在其中者ᄒᆞ니其道ᄂᆞᆫ自與甲卒로

異故로下애有鶴駒之譬ᄒᆞ다○甲니본軍卒ㅣ모미비록貴ᄒᆞ도외나글ᄒᆞᆯ사ᄅᆞᄆᆡ道

ᄂᆞᆫ진실로다ᄅᆞ니라 出塵皆野鶴歷塊匪轅駒 드틀밧긔나ᄂᆞ

ᄂᆞᆫ다미햇鶴ㅣ오ᄒᆞᆫ무적다나ᄃᆞᄅᆞᆫ술위멘ᄆᆡ아지아니니라 伊呂終難

降韓彭不易呼 此ᄂᆞᆫ言賢ᄒᆞ不進用ㅣ라○伊尹呂望도ᄆᆞᄎᆞᄆᆡᄂᆞ류미

어려우며韓信彭越도수이브르디몯ᄒᆞ리로다 五雲高太甲六月

曠摶扶 太甲요比代宗ㅣ라曠요廢오摶扶ᄂᆞᆫ風飛皃ㅣ라莊子애鵬ㅣ摶扶搖

而上者ㅣ九萬里니去以六月에息者也ㅣ라此ᄂᆞᆫ甫ㅣ廢弃故로去ᄒᆞ曠摶扶ㅣ라ᄒᆞ다○

五色구름시리에太甲ㅣ노피거시니여ᄉᆞᆺᄃᆞ래ᄂᆞᆫ개터ᄂᆞ라올아가몰몯호라 回

脊黎元病爭權將帥誅 黎元病요崔旰揚子琳之亂애巴蜀人ㅣ

困於征役ᄒᆞ니라○머리도ᄅᆞ혀보니黎元ㅣ病ᄒᆞ고權執을ᄃᆞ토ᄂᆞᆫ將帥ㅣ주놋다

山林託疲薾未必免崎嶇 薾요疲皃ㅣ라崎嶇ᄂᆞᆫ傾側皃ㅣ라

此ᄂᆞᆫ言山林間에託此老身ᄒᆞ니安能免崎嶇之行ㅣ리오○山林에시드러윤모몰브

[illegible]ᄃᆞ치崎嶇치이러이ᄂᆞᆫ[illegible]免티몯ᄒᆞ리로다

放船

收帆下急水捲幔逐回灘 비돗ᄀᆞᆯ 가다ᄃᆞᆫ 믈로 ᄂᆞ리고 帳ᄋᆞᆯ 거더 횟돈 여흘를 조ᄎᆞ롸

江市戎戎暗山雲淰淰寒 淰ᄋᆞᆫ 式荏切ᄒᆞ니 風吹皃ㅣ라 須溪去此戎戎淰淰亦不如所出이니 偶然適似ㅣ라 ○ ᄀᆞᄅᆞᆷ 져재ᄂᆞᆫ 戎戎ᄒᆞ야 어듭고 뫼 구루믄 淰淰히 서ᄂᆞᆯ토다

荒林無徑入獨鳥恠人看 거츤 수프렌 길히 드러갈 뒤 업도소니 ᄒᆞ오와 안잣ᄂᆞᆫ 새ᄂᆞᆫ 사ᄅᆞᆷ의 보ᄆᆞᆯ 嫌恠로이 너기ᄂᆞᆺ다

己泊城樓底何曾夜色闌 볼셔 城樓ㅅ 미틔 와 ᄇᆡᄅᆞᆯ ᄆᆡ요니 엇더 일즉 밤 비치 다ᄋᆞ도록 이시리오

、山館

南國晝多霧北風天正寒南븍나라해나지안개하니北븍ᄇᆞ
루매하ᄂᆞᆯ히正히서늘ᄒᆞ도다路危行木杪身遠宿雲端길히
노ᄑᆞ나못그테녀ᄀᆞ모미머리와셔구룸그테자노라山鬼吹燈滅廚
人語夜闌뫼햇귓거슨브를부러ᄲᅡ거ᄂᆞᆯ브어븨사ᄅᆞᄆᆞᆫ바미다ᄋᆞ도ᄅᆞᆨ말ᄒᆞ
놋다鷄鳴問前館世亂敢求安ᄃᆞᆯᆨ기울어ᄂᆞᆯ압지블무러가논
世ㅣ어즈러운제구틔어便安히이쇼ᄆᆞᆯ求ᄒᆞ야리아

回棹

宿昔始安命自私猶畏天 녜브터 비르수 天命ᄋᆞᆯ 便安히 너겨 내 몸 아ᄅᆞᆷ뎌 호ᄆᆞᆯ 오히려 하ᄂᆞᆯᄒᆞᆯ 저노라

勞生繫一物爲客費多年 繫一物ᄋᆞᆫ 人之勞生ㅣ 只因繫着一物ㅣ니 若名若利皆是니라 ○人生ᄋᆞᆯ ᄀᆞᆺᄇᆞ게 ᄒᆞ미 ᄒᆞᆫ 이ᄅᆡ 미엿ᄂᆞ니 나그내 ᄃᆞ외요매 여러 ᄒᆡᄅᆞᆯ 費盡ᄒᆞ라

衡岳江湖大蒸池疫癘偏 衡岳ᄋᆞᆫ 南岳ㅣ라 蒸池ᄂᆞᆫ 在衡陽縣ᄒᆞ니라 ○衡岳ᄭᅴ 해 江湖ㅣ 크니 蒸池ᄉᆞ이 ᅌᅧᆫ 모딘 病ㅣ 하도다

散才嬰薄俗有跡負前賢 有跡ᄋᆞᆫ 賢者ᄂᆞᆫ 以絶跡ᄋᆞ로 爲貴ᄒᆞᄂᆞ니 甫有留滯之跡故로 負愧於前賢ㅣ니라 ○閑散ᄒᆞᆫ 지조로 열온 時俗애 버므리ᄃᆞᆫ니 노니 자최 이쇼ᄆᆞᆯ 알ᄑᆡ 賢人ᄋᆞᆯ 븟그리노라

巾拂那關眼瓶罍易滿船此ᄂᆞᆫ言放曠ᄒᆞ야不為容飾ㅣ오飲器란多載於船也ㅣ라○巾과拂子ㅣ엇디누네거리ᄢᅵ리오甁과罍옷수이ᄇᆡ예ᄀᆞ득ᄒᆞ놋다

火雲滋垢膩凍雨裛沉綿沉綿은久病也ㅣ라○더운구루멘ᄣᅢ주미더으ᄂᆞ니ᄅᆞᆫ비ᄂᆞᆫ오란病을저지ᄂᆞ다ᄇᆡ

強飯蓴添滑端居茗續煎고ᄂᆞᆯ과밥머거蓴옷믯믯ᄒᆞ닐더으고됴히사라여차ᄅᆞᆯ니어달히노라

清思漢水上涼憶峴山巔몯고지란漢水ㅅ우흘ᄉᆞ랑ᄒᆞ고서ᄂᆞᆯᄒᆞᆫ뎌란峴山ㅅ그ᄐᆞᆯ그려ᄒᆞ노라

順浪翻堪倚回帆又省牽내믌겨레順流ᄒᆞ야도ᄅᆞ혀시험ᄌᆞᆨᄒᆞᆫ니ᄇᆡ도라가매ᄯᅩᄭᅳᆺ거가ᄆᆞᆯ덜리로다

吾家碑不昧王氏井依然 杜預碑在峴山上ᄒᆞ니 甫ᄂᆞᆫ 預之後 故로 云吾家ㅣ니라 王粲井ㅣ在荊州ᄒᆞ니라 ○우리 짓 碑ᄂᆞᆫ 昧滅티 아니ᄒᆞ고 王氏의 우므른 依然ᄒᆞ얏ᄂᆞ니라

几杖將衰齒茅茨寄短椽 寄短椽요 言欲居峴山也ㅣ라 ○几와 막대와로 늘근 나ᄒᆞᆯ 가져 ᄃᆞ니노니 새 지보란 더른 ᄂᆡᄅᆞᆯ 보리라 됴

灌園曾取適遊寺可終焉 菜園에 믈 주몰 일즉 내 ᄆᆞᅀᆞ매 마조몰 取ᄒᆞ니 더레 가 노로몰 可히 ᄆᆞᄎᆞ매 ᄒᆞ리라

遂性同漁父

成名異魯連 魯仲連ㅣ 却秦軍下燕城ᄒᆞ니 雖不受封ㅣ나 猶爲取名也ㅣ라 ○性일 우므란 고기 잡ᄂᆞᆫ 사ᄅᆞᆷ ᄀᆞ티 ᄒᆞ고 일홈 일우므란 魯連과 다ᄅᆞ로리라

篙師

煩爾送朱夏及寒泉 샥풍하ᄂᆡ의날보내요믈어즈러이ᄒᆞ노니블근녀르메ᄎᆞㅁ레뎃게ᄒᆞ라

行次古城店ᄒᆞ야泛江作ᄒᆞ야不揆鄙拙ᄒᆞ야

奉呈江陵幕府諸公ᄒᆞ노라

老年常道路遲日復山川 遲日ᄋᆞᆫ春日ㅣ라此ᄂᆞᆫ言衰老ᄒᆡ不得安居ᄒᆞ야常在道路ᄒᆞ고春日ㅣ可遊玩이어늘復奔走山川也ㅣ라○늘근나해샹녜길헤ᄃᆞᆫ니노니遲遲ᄒᆞᆫ나래ᄯᅩ山개이로다

白屋花開裡孤城麥秀邊 白屋ᄋᆞᆫ庶人ㅣ以白茅로覆屋ㅣ라○흰지븐곳ᄑᆡᆫᄃᆞᆫ소기오외로온城은보

리난ᄂᆞᆫᄀᆞ이로다 濟江元自闊下水不勞牽 건나ᄂᆞᆫᄆᆞᄅᆞ미 본ᄃᆡ 쳐어위니 믈로 ᄂᆞ려가매 ᄇᆡ그우믈 잇비 아니ᄒᆞ리로다 風蝶勤依槳春鷗懶避船 槳ᄋᆞᆫ 楫ㅣ라 ○ ᄇᆞᄅᆞ매 나ᄇᆡᄂᆞᆫ ᄇᆡ치브터 안조ᄆᆞᆯ 브즈러니ᄒᆞ고 봆ᄀᆞᆯ며기ᄂᆞᆫ ᄇᆡ避ᄒᆞ몰 게으리ᄒᆞᄂᆞ다 王門高德業幕府盛材賢 王ᄋᆞᆫ 指江陵節度使陽城郡王衛伯玉ㅣ라 ○ 王門ᄋᆞᆫ 德業ㅣ 놉고 幕府엔 材賢ㅣ 하도다 行色兼多病蒼茫況愛前 此ᄂᆞᆫ 言蒼茫然在諸公이 況愛之前ㅣ라 ᄒᆞ니 言幕府諸公ㅣ 實無能賺故之者ㅣ니라 ○ 녀가매 한 病ㅣ 兼ᄒᆞ니 너비 ᄉᆞ랑ᄒᆞᄂᆞᆫ 알ᄑᆡ 아ᄋᆞ라히 인노라

舟中出江陵南浦奉寄鄭少尹審

更欲投何處飄然去此都此都ᄂᆞᆫ指江陵ᄒᆞ니라○ᄯᅩ어듸러
가고져커ᄂᆞᆫ飄然히이都를ᄇᆞ리고가노라形骸元土木舟楫復
江湖土木ᄋᆞᆫ言不自藻飾ㅣ라○내얼구른본ᄃᆡ로ᄒᆞᆰ과나모ᄀᆞᆮ토니ᄇᆡ타ᄯᅩ므ᄅᆡ
왓노라社稷纒妖氣干戈送老儒送ᄋᆞᆫ如送葬之送ㅣ라○
社稷엔妖怪ㅣ로윈氣運ㅣ버므럿도소니干戈ᄂᆞᆫ늘근션비를보내ᄂᆞ다百年
同棄物萬國盡窮途百年에ᄇᆞ룟ᄂᆞᆫ것과ᄒᆞᆫ가지로니萬國에다窮
迫ᄒᆞᆫ길ᄒᆡ로다雨洗平沙淨天銜闊岸紆비ᄂᆞᆫ平沙를시서조

핫고하ᄂᆞᆯᄒᆞᆫ어윈믈ᄀᆞ올鳴螢隨泛梗別燕
銜花ᄒᆞ야버므럿도다
起秋菰梗ᄋᆞᆫ枯木ㅣ라菰ᄂᆞᆫ菰蒲ㅣ라○우
ᄂᆞᆫ뒤야미ᄂᆞᆫ므렛뎐ᄂᆞᆫ남ᄀᆞᆯ조차인
잣고여희여가ᄂᆞᆫ져비ᄂᆞᆫᄀᆞ棲託難高臥饑
ᅀᆞᆳ菰草애셔니러가놋다
寒迫向隅보터ᄃᆞᆫ니매노피누어ᄉᆞ미어렵
도소니굴므며치위邊隅로向ᄒᆞ
야가매
迫호라逼寂寥相呴沫浩蕩報恩珠呴沫ᄋᆞᆫ
莊子애
魚相與處於陸에相呴以濕相濡以沫이라
ᄒᆞ니라報珠ᄂᆞᆫ隋侯ㅣ見蛇傷ᄒᆞ고以藥封
之ᄒᆞ야ᄂᆞᆯ後에蛇ㅣ銜珠以報ᄒᆞ니此ᄂᆞᆫ甫
言朋友ㅣ無相救恤ㅣ라○셔ᄅᆞ부ᄂᆞᆫ츠디
고요ᄒᆞ고恩惠갑ᄂᆞᆫ溟漲鯨波動衡陽鴈影
구슬도머리엽도다

徂바ᄅᆞ리미혀ᄂᆞᆫᄃᆡ고래잇ᄂᆞᆫ믌겨리음ᄌᆞ뎌고衡陽앤그리그르매가ᄂᆞ다南
征問懸榻東逝想乘桴懸榻ᄋᆞᆫ漢人陳蕃ㅣ守豫章ᄒᆞ야爲徐穉
ᄒᆞ야設一榻ᄒᆞ고去則懸ᄒᆞ니此ᄂᆞᆫ指鄭少尹ᄒᆞ다乘桴ᄂᆞᆫ甫ㅣ東去而想孔子ㅅ乘桴
浮海也ㅣ라○南녀그로녀榻ᄃᆞ로닐믈고東녀그로가ᄈᆡᄐᆞ믈ᄉᆞ치노라濫竊
商歌聽時憂卞泣誅寗戚ㅣ飯牛而商歌ㅣ어ᄂᆞᆯ齊桓公ㅣ聞而用
之ᄒᆞ니라卞和ㅣ獻璞於楚王ᄒᆞ야ᄂᆞᆯ不識而刖足ᄒᆞ니라此ᄂᆞᆫ甫欲見用於世호ᄃᆡ部
憂有不遇之患ㅣ니라○商聲으로브르ᄂᆞᆫ놀애ᄅᆞᆯ듣과ᄃᆡ어ᄒᆞ야라沉濫히그ᅀᆞ기나기
건마ᄂᆞᆫ卞和의우러誅호ᄆᆞᆯ時時예시름ᄒᆞ노라經過憶鄭驛斟酌

旅情孤 鄭當時ㅣ置驛ᄒᆞ야以待賓客ᄒᆞ더ㅣ以比鄭審ᄒᆞ다斟酌은度量也ㅣ
니言鄭審ㅣ必度我의孤旅之情ㅣ니라○
디나가매鄭驛올ᄉᆞ랑ᄒᆞ노니나그내ᄠᅳ디
외로외요몰헤
아리거니라

○曉發公安數月憩息此縣

北城擊柝復欲罷東方明星亦不遲 柝은斫木爲之
ᄒᆞ야夜行所擊ㅣ라明星은새별ㅣ라○北
城에셔두드리논柝ㅣᄯᅩ뭇고져ᄒᆞᄂᆞ니東
方엣ᄇᆞᆯᄀᆞᆫ벼리도ᄯᅩ미任
더듸디아니ᄒᆞ도다鄰鷄野哭如昨日物
色生態能幾時 能幾時ᄂᆞᆫ言時光之易流也
ㅣ라○이우제ᄃᆞᆯ기며ᄆᆡ햇

우투미어제곧ᄃᆞ니物色이나 논양ᄌᆞ는能히엿맛뻬니오 舟楫渺然自

此去江湖遠適無前期 無前期ᄂᆞᆫ不知所止라○비타아ᄋᆞ라ᄒᆡ

일로브터가노니江湖애머리가미알퓌期限ㅣ업도다 此門轉眄已陳

迹藥餌扶吾隨所之 이문을도라본ᄃᆡᄒᆞ마무근자최ᄃᆞ외도소니

藥餌옷나ᄅᆞᆯ扶持ᄒᆞ야가ᄂᆞᆫᄃᆡ좃ᄂᆞ다

、泊岳陽城下

江國踰千里山城僅百層 江國ㅣ千里남도소ㅣ山城은아야라온層이로다

岸風翻夕浪舟雪灑寒燈 두들겟ᄇᆞᄅᆞ맨나죗

믌겨리두위잇거늘비엿눈은ᄎᆞᆫᄇᆞ래ᄠᅳ리ᄂᆞᆺ다 留滯才難盡艱危氣益增 留滯ᄂᆞᆫ甫ㅣ流寓荊南ㅣ니比太史公의留滯周南ᄒᆞ다○머므러이시나재조ᄂᆞᆫ難히다ᄋᆞ리로소니어려이ᄃᆞᆫ뇨매氣運은더옥더으ᄂᆞᆺ다 圖南未可料變化有鯤鵬 圖南ᄋᆞᆫ用莊子엣鯤鵬의圖南事ᄒᆞ니甫ㅣ方南征故로比鵬之圖南ᄒᆞ니라○南ᄋᆞ로圖謀ᄒᆞ야가몰可히혜아리디몯ᄒᆞ리니變化ᄒᆞᆯ鯤鵬ㅣ잇ᄂᆞ니라

纜船苦風戲題四韻奉簡鄭十三判官

泛

東岸朔風疾天寒鶬鴰呼 東녁 두들게 北녁 ᄇᆞᄅᆞ미 ᄲᆞᄅᆞ니 하ᄂᆞᆯ히 칩고 鶬鴰ㅣ 우루놋다

漲沙霾草樹舞雪渡江湖 므레 밀엿ᄂᆞᆫ 몰애ᄂᆞᆫ 草樹를 묻고 춤츠ᄂᆞᆫ 눈ᄋᆞᆫ 江湖애 건나가놋다

吹帽時時落 帽ᄂᆞᆫ 頭帽ㅣ라 ○곳가ᄅᆞᆯ 부러 時時예 디ᄂᆞ니

維䈂日日孤 비ᄅᆞᆯ ᄆᆡ야 나날 외로이 ᅌᅩ라

因聲置驛外為覓酒家壚 置驛ᄋᆞᆫ 見上ᄒᆞ니 指鄭泛ᄒᆞ니라 壚ᄂᆞᆫ 累土為之ᄒᆞ야 形如鍛壚ᄒᆞ니 以置酒甕ᄒᆞᄂᆞ니라 此ᄂᆞᆫ 甫ㅣ 欲從鄭泛ᄒᆞ야 求酒也ㅣ라 ○驛을 둔 밧긔 소리ᄅᆞᆯ 因ᄒᆞ야 술 프ᄂᆞᆫ 짓 壚를 為ᄒᆞ야 얻노라

過南嶽入洞庭湖

洪波忽爭道岸轉異江湖 너븐 믌겨리 믄드시 길흘 ᄃᆞ토리더니 두들기 올ᄆᆞ니 江湖ㅣ ᄃᆞᄅᆞ도다 鄂渚分雲樹衡山引舳艫 鄂渚엔 구룸 낀 남기 ᄂᆞᆫ호엿고 衡山ᄋᆞᆫ 내 ᄐᆞᆫ 비ᄅᆞᆯ 혀ᄂᆞ다 翠牙穿裛蔣碧節吐寒蒲 프른 어믄 저즌 뎔들웨 난ᄂᆞᆫ 菰蔣ㅣ오 프른 ᄆᆞᄃᆡᄂᆞᆫ 치위예 난ᄂᆞᆫ 줄픠로다 病渴身何去春生力更無 消渴人病ᄒᆞᆫ 모ᄆᆞᆫ 어듸러 가리오 봆 氣運ㅣ 나니 히미 ᄯᅩ 업ᄂᆞ다 壤童犂雨雪漁屋架泥塗 리ᄯᅥ햇 아ᄒᆡ 돌ᄒᆞᆫ 눈비예 셔 받 갈오 고기 잡ᄋᆞᆯ 지븐 즌 ᄒᆞᆰ 서리예 지엇도다 欹側風帆滿微明水驛孤 기우서 ᄇᆞᄅᆞ매 빗돗ᄀᆞ독ᄒᆞ얏고 아ᄋᆞ

라ᄒᆞᆫ뭀ᄆᆞᄉᆡᆺ驛은외로외도다 悠悠回赤壁浩浩略蒼梧어리라

赤壁으로횟돌오현히蒼梧를ᄀᆞ리터가노라 帝子留遺恨曹公屈壯圖

帝子ᄂᆞᆫ娥皇女英ㅣ니哭舜於蒼梧故로云遺恨ㅣ라曹公은曹操ㅣ니敗戰

赤壁ᄒᆞ니此二句ᄂᆞᆫ承上赤壁蒼梧而言ᄒᆞ다○帝子ㅣ기튼슬후믈머믈웟고曹公은

壯ᄒᆞᆫ꾀ᄅᆞᆯ구피니라 聖朝光御極殘孼駐艱虞 殘孼은謂吐蕃

ㅣ니時猶未息ㅣ라○聖朝ㅣ御極ᄒᆞ샤미빗나시나殘孼ㅣ艱虞로머믈웟도다 才

淑隨厮養名賢隱鍛鑪 厮ᄂᆞᆫ取薪者ㅣ오養ᄂᆞᆫ養人者ㅣ라鍛은

冶ㅣ니嵇康ㅣ鍛鑪ᄒᆞ니此ᄂᆞᆫ言才賢者ㅣ不見用也ㅣ라○재조됴ᄒᆞ니도厮養ᄒᆞ

요ᄆᆞᆷ조차ᄃᆞ니며일훔난어디
니도블무질ᄒᆞ기예수멋도다
邵平元入漢
張翰後歸吳
東陵侯邵平ㅣ種瓜長安城東ᄒᆞ니此ᄂᆞᆫ甫ㅣ飄流他鄕ᄒᆞ야歎不如平之元在漢也ㅣ니라張翰ㅣ思蓴鱸ᄒᆞ야遂歸吳ᄒᆞ니此ᄂᆞᆫ甫ㅣ以南下之遲로比之ᄒᆞ니라○邵平ᄋᆞᆫ본ᄃᆡ로漢仍해드럿고張翰ᄋᆞᆫ내죵애吳애가니라
莫怪啼痕數
危檣逐夜烏
우ᄂᆞᆫ눈믈그제ᄌᆞ조ᄆᆞᆯ妖怪히너기디말라노ᄑᆞᆫᄇᆡᆺ대ᄇᆞᆷ가마괼좃ᄂᆞ다

宿青草湖

洞庭猶在目
青草續爲名
青草湖ㅣ與洞庭ᄋᆞ로相連ᄒᆞ니라

○洞庭ㅣ오히려누비인ᄂᆞ니
青草湖ㅣ니어일훔ᄒᆞ얏도다宿槳依農事
郵籤報水程郵籤은漏籌ㅣ니舟中에用以知時ᄒᆞᄂᆞ니라○자ᄂᆞᆫ비ᄂᆞᆫ녀
름짓ᄂᆞᆫᄃᆡ브텟고郵籤은뭀즘게ᄅᆞᆯ알외ᄂᆞ다寒氷爭倚薄雲月遞
微明ᄎᆞᆫ어름은ᄃᆞ토와다미텟고구루메ᄃᆞᄅᆞᆫ서르져기ᄇᆞᆰᄂᆞ다湖鴈雙
雙起人來故北征甫ㅣ離鄕南來어ᄂᆞᆯ鴈乃北征ᄒᆞ니人反不如也ㅣ
라○ᄀᆞᄅᆞᇝ그려기雙雙ㅣᄂᆞ러자루미오거ᄂᆞᆯ부러北으로가ᄂᆞ다

ㅣ宿白沙驛

水宿仍餘照人煙復此亭므레자매지즈로히비취유미기ᄃᆡ

도ᄉᆞ니 人煙 잇ᄂᆞᆫ ᄯᅡ해 ᄯᅩ 이 亭子ㅣ로다 驛邊沙舊白湖外草新

青 驛ㅅᄀᆞ애 몰애 녜브터 희니ᄀᆞᄅᆞᆷ 밧기 프리 새로 프르도다 萬象皆春

氣孤槎自客星 孤槎ᄂᆞᆫ 博物志예 有人ㅣ乘浮槎ᄒᆞ야 至天河ᄒᆞ야 늘 嚴

君平ㅣ以為客星ㅣ犯牛女ㅣ라ᄒᆞ니 此ᄂᆞᆫ 甫ㅣ自喩乘舟來往ᄒᆞ니라 ○ 萬象은 다 봆

氣運엣 거시오 외로온 들ᄀᆞᆯ믄 ᄉᆞᄉᆞ로 客星ㅣ 탓도다 隨波無限月的

的近南溟 的的은 月色之明ㅣ라 ○ 뭀겨를 좃ᄂᆞᆫ 그지 업슨 ᄃᆞ리 ᄇᆞᆯ가 南녁 바

ᄅᆞ래 갓갑도다

野望

納納乾坤大行行郡國遙 納納ᄋᆞᆫ廣大包容皃ㅣ라○드리며드리ᄂᆞᆫ乾坤ㅣ크니녀며녀매郡國ㅣ아ᄋᆞ라ᄒᆞᆫ도다 雲山兼五嶺風壞帶三苗 五嶺ᄋᆞᆫ大庾始安臨賀桂陽揭陽ㅣ라風壞ᄋᆞᆫ謂風土ㅣ라○雲山ᄋᆞᆫ다ᄉᆞᆺ嶺에兼ᄒᆞ얏고風壞ᄋᆞᆫ三苗ᄯᅡᄒᆞᆯᄯᅴ찻도다 野樹侵江闊春蒲長雪消 미햇남ᄀᆞᆫ므리어윈ᄃᆡ侵逼ᄒᆞ얏고봆ᄌᆞᆯ퓌ᄂᆞᆫ눈노ᄀᆞᆫ더기놋다 扁舟空老去無補聖明朝 져근비ᄐᆞ고쇽졀업시늘거가노니聖明ᄒᆞ신朝ᄅᆞᆯ깁ᄉᆞᄫᆞᆯ줄업도다

入喬口

漢漠舊京遠遲遲歸路賖○遲遲는行見ㅣ라 아ᄋ라히녜녀

울히머니날호야 가논길히머도다 殘年傍水國落日對春華

衰殘ᄒᆞᆫ나해믌나라ᄒᆞᆯ바라든 니고디ᄂᆞᆫᄒᆡ예봆비ᄎᆞᆯ對호라 樹蜜早蜂亂

江泥輕鷰斜 樹蜜은摸也ㅣ니一名은木餳 ㅣ라○樹蜜엔이런버리어즈

럽고ᄀᆞᄅᆞᇝ홀기가비야 온져비빗기ᄂᆞ놋다 賈生骨已朽悽惻近

長沙 賈生은賈誼니爲長沙王傅ᄒᆞ니라○ 賈生의뼤ᄒᆞ마서그니長沙애갓가이

와셔슬허 ᄒᆞ노라

銅官渚守風

不夜楚帆落避風湘渚間 밤아니ᄃᆞ외야셔 楚앳 빗돗 ᄀᆞᆯ디여 湘水ㅅ ᄀᆞᅀᆞ이예 ᄇᆞᄅᆞ몰 避ᄒᆞ라

水耕先浸草春火更燒山 春火ᄂᆞᆫ 即燒畬田ㅣ라○믈 잇ᄂᆞᆫ 논 가ᄅᆞ맨 몬져 프를 ᄌᆞᄆᆞ거ᄂᆞᆯ 보ᄆᆡᆺ 브ᄅᆞᆫ ᄯᅩ 뫼ᄒᆞᆯ 브티ᄂᆞᆺ다

早泊雲物晦逆行波浪慳 일 ᄇᆡ 브티요매 구루미 어드우니 버스리 녀매 믌겨리 ᄀᆞᆫ ᄇᆞᄅᆞ도다

飛來雙白鶴過去杳難攀 ᄂᆞ라오ᄂᆞᆫ 두 힌 鶴ㅣ 디나가니 아ᄋᆞ라ᄒᆞ야 더위자보미 어렵도다

北風

春生南國瘴氣待北風蘇 보ᄆᆡ 南國이 더운 病ㅣ 나니 내 氣運

은北녁ᄇᆞᄅᆞᆷ올기들위ᅀᅳᆷᅀᅳᆷᄒᆞ도다 向晩霾殘日 初宵皷大鑪
나조ᄒᆞᆯ向ᄒᆞ야디ᄂᆞᆫᄒᆡ어득ᄒᆞ고첫어ᅀᅳ르매큰불무로부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爇携畢
濕地聲拔洞庭湖 聲拔ᄋᆞᆫ風之雄大如此ᄒᆞ다○서늘호믈畢濕ᄒᆞᆫᄯᅡ
해가져오고소리ᄂᆞᆫ洞庭엣므를ᄲᅢ혀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萬里魚龍伏三更
鳥獸呼 魚龍伏鳥獸呼ᄂᆞᆫ皆言風勢之大ᄒᆞ다○萬里예고기와龍ㅣ두리여ᄀᆞᆺ
블오三更에새와즘ᄉᆡᆼ괘놀라우ᄂᆞ다 滌除貪破浪 愁絶付摧
枯 시서ᄇᆞ려ᄇᆞᆰ곬헤듀믈貪ᄒᆞᄂᆞ니시르믈이운나모것글가호매브티노라 執
熱沉沉在 凌寒往往須 且知寛疾肺 不敢恨

危塗더위롤자바담다비이셔서늘ᄒᆞᆫ氣運凌犯ᄒᆞ몰므더므더예求ᄒᆞ더니가숨

알ᄒᆞ미헌ᄒᆞ믈또아로니구티여어려운길흘ᄎᆞ기너기디아니ᄒᆞ노라再宿煩

舟子褒容問僕夫다시곰자비달ᄒᆞᄂᆞᆫ사ᄅᆞᆷ올어즈러이ᄒᆞ고衰殘ᄒᆞᆫ

양ᄌᆞ란ᄑᆞᆼ더브러몯노라今晨非盛怒便道即長驅오ᄂᆞᆯ새배

ᄂᆞᄆᆞ장怒티아니ᄒᆞ니ᄒᆞᆯ시便安ᄒᆞᆫ길ᄒᆞ로곧기리모라가노라隱几看帆席

雲山湧坐隅雲山ᄋᆞᆫ波浪之湧ㅣ如山也ㅣ라○几롤비겨셔뵈돗ᄀᆞᆯ보니

구룸ᄭᅵᆫ모히안잣ᄂᆞᆫ모해셔소사나ᄂᆞ다

發潭州

夜醉長沙酒曉行湘水春 바ᄆᆡ 長沙애 수 醉ᄒᆞ고 새배 湘水ㅅ 보ᄆᆡ 녀노라 岸花飛送客檣燕語留人 두들겟 고ᄌᆞᆫ ᄂᆞ라 소ᄂᆞᆯ 보내오 빗대옛 져비ᄂᆞᆫ 말ᄉᆞᆷᄒᆞ야 사ᄅᆞᆷ을 머믈우ᄂᆞ다 賈傅才未有褚公書絕倫 賈傅ᄂᆞᆫ 即賈誼라 褚公ᄋᆞᆫ 褚遂良ㅣ 為潭州都督ᄒᆞ니라 ○賈傅의 저조ᄂᆞᆫ 샹녜 잇디 아니코 褚公의 글스기ᄂᆞᆫ ᄂᆞᄆᆡ 무레 絕等ᄒᆞ니라 名高前後事回首一傷神 此ᄂᆞᆫ 賈褚二公ㅣ 皆謫此地 故로 甫ㅣ 追慕而傷ᄒᆞ니라 ○일훔 노ᄑᆞᆫ 前後ㅅ 사ᄅᆞᄆᆡ 이레 머리 도라 ᄇᆞ라셔 ᄒᆞᆫ번 ᄆᆞᅀᆞᄆᆞᆯ 슬노라

雙楓浦

輟棹青楓浦雙楓舊已摧 青楓浦애와비촐 그츄니두싯남기

녜ᄒᆞ마 드ᄅᆞ도다 自驚衰謝力不道棟梁材 此二句 ᄂᆞᆫ甫ㅣ

言楓之摧老而寓意自傷也ㅣ라○늘근브 ᅀᅳᆯ완히믈스스로놀라노니棟梁ᄉᆞ골材質

ㅣ라니ᄅᆞ디 몯ᄒᆞ리로다 浪足浮紗帽皮須截錦茵 甫欲 着紗

帽乘風襟ᄒᆞ야泝此水而上天ᄒᆞ니浦浪ᄋᆞᆫ 雖是可泛ㅣ나楓皮ᄂᆞᆫ苔滑難乘故로須截

削也ㅣ라○믌겨리足히紗帽를ᄢᅴ우리로 소니거프른모ᄅᆞ매어르누근이를갓가ᄇᆞ

ᄅᆞᆯ디 로다 江邊地有主暫借上天迴 上天迴ᄂᆞᆫ欲 尋無主之地

ᄒᆞ니傷世狹也ㅣ라○이믌ᄀᆞ잣싸ᄒᆞᆫ님자히잇 ᄂᆞ니잠깐비러하ᄂᆞᆯ해오라너러오리라

登舟將適漢陽

春宅棄汝去秋帆催客歸甫ㅣ二月에到潭州ᄒᆞ야因居焉故로名之曰春宅ㅣ라秋帆ᄋᆞᆫ即今所登之舟ㅣ라○봆지바너를ᄇᆞ리고가노니ᄀᆞᅀᆞᆳ빗ᄌᆞᆺ기나그내도라가ᄆᆞᆯ뵈아ᄂᆞ다

庭蔬尚在眼浦浪已吹衣ᄠᅳᆯ헷ᄂᆞᄆᆞᆯ히오히려누네잇ᄂᆞ니개옛믌겨리ᄒᆞ마오ᄉᆞᆯ부놋다

生理飄蕩拙有心遲暮違生理ᄂᆞᆫ飄蕩히ᄃᆞᆫ뇨매蹤拙ᄒᆞ고녜잇던ᄆᆞᅀᆞᄆᆞᆫ늘구매어그릇도다

中原戎馬盛遠道素書稀素書ᄂᆞᆫ古入ㅣ為書ᄅᆞᆯ多書於綃ᄒᆞ더니此ᄂᆞᆫ言故鄉書信ㅣ少ᄡᅵㅣ라○中原에사호맷ᄆᆞ리하니먼길헤

힌글위리 드므도다리 塞鴈與時集 檣烏終歲飛 與時集은時方秋故로鴻鴈ㅣ来集也ㅣ라○ᄀᆞ잇그려기는時節로다몯거놀빗대옛가마괴는ᄒᆡᄅᆞ도ᄅᆞ록ᄂᆞ놋다

鹿門自此往 家息漢陰機 鹿門은山名ㅣ니龐德公의隱處ㅣ라漢陰機ᄂᆞᆫ莊子애漢陰丈人ㅣ曰有機事者ㅣ必有機心ㅣ라ᄒᆞ니機心은謂機巧之心ㅣ라○鹿門에일로브터가漢陰엣機心을기리그츄리리

舟中

風餐江柳下 雨臥驛樓邊 ᄇᆞᄅᆞ매믈ᄀᆞᆺ버듨아래셔밥먹고비예驛樓ㅅᄀᆞ애누워쇼라

結纜排魚網 連檣並米船 빗주ᄅᆞᆯᄆᆡ

요니고기잡는그므리버릿고빗대니어시니밤ᄉ이른비골왓도다 今朝雲細薄昨夜月清圓 오ᄂᆞᆳ아ᄎᆞᄆᆡ구루미ᄀᆞᄂᆞ오열우니어젯바ᄆᆡᄃᆞ리ᄆᆞᆰ고두렵더니라

飄泊南庭老祗應學水仙 南庭ᄋᆞᆫ南方之庭ㅣ라老ᄂᆞᆫ甫ㅣ自謂라水仙ᄋᆞᆫ即河伯ㅣ라此ᄂᆞᆫ甫ㅣ久於乘舟故로云當學水仙也ㅣ라○飄泊ᄒᆞ야ᄃᆞᆫ니ᄂᆞᆫ南庭옛나ᄂᆞᆫ오직水仙이ᄅᆞᆯ비홀디로다

南征

春岸桃花水雲帆楓樹林 三月桃花發時예春水生ᄋᆞᆯ謂之桃花水ㅣ라○봄두듥桃花ㅅ므렛구룸ᄀᆞᄐᆞᆫ빗돗기신나모수픐서리로다 偷生

長避地適遠更霑襟 내人生ᄋᆞᆯ 일 비어 기리 어려운 ᄣᅢ홀에 여토니
고 먼 ᄃᆡ 가매 다시 옷기ᄌᆞᆯ 눉므로 저지노라 老病南征日君恩北
望心 늙고 病애 南녀크로 가ᄂᆞ나리여 님금 恩息를 北녀크로 ᄇᆞ라ᄂᆞᆫ ᄆᆞᄋᆞ미로다
百年歌自苦未見有知音 知音ᄋᆞᆫ 知心之人ㅣ라 ○百年人生
애 노래 스스로 셜우니 소리 알리 이쇼ᄆᆞᆯ 보디 몯ᄒᆞ리로다

久客

羈旅知交態淹留見俗情 나그내로 ᄃᆞᆫ녀셔 사괴ᄂᆞᆫ 양ᄌᆞᄅᆞᆯ 아
노니 머므러셔 俗人의 ᄠᅳ들 보노라 衰顏聊自哂小吏最相輕

衰老ᄒᆞᄂ 촘스스로 운노니ᄒᆞ고 去國哀王
官吏ᄃᆞ외히 안직서르업시우ᄂᆞ다
粲傷時哭賈生 王賈ᄂᆞᆫ 皆甫ㅣ自比ᄒᆞ다○
나라ᄒᆞᆯ ᄇᆞ리고 王粲ㅣ 슬허
ᄒᆞ고 時節를 슬허 賈生ㅣ우니라 狐狸何足道豺虎正縱橫 漢人
張綱ㅣ日豺狼當道ㅣ니安問狐狸라ᄒᆞ니
時예 吐蕃之亂ㅣ末息故로 云ᄒᆞ니라○여
ᅀᆞ와 솔고ᄅᆞᆫ 엇디 足히 니ᄅᆞ리
오 일히와 범패 正히 하도다

遠遊

江闊浮高棟雲長出斷山 ᄀᆞᄅᆞ미어위니노ᄑᆞᆫ 집몰리 ᄠᅥ고구
루미 ᄀᆞᆫ뒤 그츤 뫼
히 내미 엇도다 塵沙連越嶲風雨暗荊蠻

此ᄂᆞᆫ言吐蕃之亂ᄒᆞ다○드틀와ᄆᆞᆯ애ᄂᆞᆫ越
嶲애니엇고ᄇᆞᄅᆞᆷ과비와ᄂᆞᆫ荊蠻애어드웟
도다

鴈矯銜蘆內猿啼失木間 淮南子ㅣ曰鴈ㅣ銜蘆而飛ᄒᆞ야以避矰繳ㅣ니라此ᄂᆞᆫ甫ㅣ自比避亂失所也ㅣ라○그려기ᄂᆞᆫᄀᆞᄅᆞᆯ므럿ᄂᆞᆫ안해ᄂᆞᆫ개ᄅᆞᆯ드럿고나ᄇᆞᆫ나모일흔ᄉᆞ이예셔우ᄂᆞᆺ다

弊裘蘇季子歷國未知還 季子ᄂᆞᆫ蘇秦의字ㅣ니遊說秦王而黑貂之裘ㅣ弊ᄒᆞ니此ᄂᆞᆫ甫ㅣ自比羈旅
周流ᄒᆞ다○헌갓옷니븐蘇季子ㅣ여나라
ᄒᆞᆯ디나ᄃᆞᆫ녀셔도라가ᄆᆞᆯ아디몯ᄒᆞᄂᆞᆺ다

客夜

客睡何曾著秋天不肯明 나그내조오로미엇뎨일즉브터오

리오 ᄀᆞᅀᆞᆳ 하ᄂᆞᆯ히 ᄇᆞᆯ고ᄆᆞᆯ 즐기디 아니ᄒᆞᄂᆞ다 入簾殘月影高枕遠

江聲 바래 드리 비취ᄂᆞᆫ 殘月ㅅ 그르메로 소니 벼개ᄅᆞᆯ 노피 벼여 시니 먼 ᄀᆞᇝ 소리로다

計拙無衣食途窮仗友生 혜아료미 疎拙ᄒᆞ야 옷 바비 업고 길히 窮迫ᄒᆞ야 버들 브노라

老妻書數紙應悉未歸情 늘근 겨지븨 유무 두어 張은 당다이 가디 몯ᄒᆞ논 ᄠᅳ들 ᄌᆞ셰히 ᄒᆞ얏도다

客亭

秋窓猶曙色木落更天風 ᄀᆞᅀᆞᆳ 窓애 오히려 새배 빗치로소니 남기 ᄠᅥ러디고 ᄯᅩ 하ᄂᆞᆯ ᄇᆞᄅᆞ미 부ᄂᆞ다

日出寒山外江流宿霧

中ᄒᆡᄂᆞᆫ 치운뫼 밧긔 돋고 ᄀᆞᄅᆞᄆᆞᆫ 밤잔 안갯 가온ᄃᆡ셔 흐르ᄂᆞ다聖朝無棄物老病已成翁聖朝ㅣ ᄇᆞ리실 거시 업거신마ᄂᆞᆫ 나 하 늙고 病ᄒᆞ야 ᄒᆞ마 늘그니 ᄃᆞ외요라多少殘生事飄零似轉蓬하며 져근 衰殘ᄒᆞᆫ 사ᄅᆞᆺᄂᆞᆫ 이리 飄零ᄒᆞ미 옮도니ᄂᆞᆫ 다봇 ᄀᆞᆮᄒᆞ라

曉行口號

三川不可到歸路晩山稠三川ᄋᆞᆫ 縣名ㅣ니 甫의 妻子ㅣ 時居ᄒᆞᄒᆞ니라 ○三川에 可히 니르디 몯ᄒᆞᆯ 돗ᄒᆞ도소니 갈 길헤 나조ᄒᆡ 뫼히 하도다落鴈浮寒水飢烏集戍樓集戍樓ᄂᆞᆫ 言兵ㅣ 敗散ᄒᆞᆯ시 烏ㅣ 來集ᄒᆞ니라

○새려오ᄂᆞᆫ그려기ᄂᆞᆫᄎᆞᆫ므려ᄡᅧᆺ고ᄌᆞ주市朝
린가마괴ᄂᆞᆫ防戍ᄒᆞᄂᆞᆫ樓에모ᄃᆞᆺ도다

今日異喪亂幾時休 今日異ᄂᆞᆫ言經亂而風物ㅣ變也ㅣ라○市朝ㅣ오ᄂᆞᆳ날다ᄅᆞ니喪亂ᄋᆞᆫ어느時節에말려뇨

遠愧梁江總還家尚黑頭 此ᄂᆞᆫ言江總ㅣ仕梁ᄒᆞ다가梁ᄋᆞᆫ而仕陳ᄒᆞ고陳ᄋᆞᆫ而入隋ᄒᆞ야歷仕三朝ᄒᆞ다가及歸家而尚年少則其無忠節ᄋᆞᆫ可知니라甫亦自京ᄋᆞ로歸家故로思江總之為人而反愧之ᄒᆞ니라○梁國ㅅ江總ㅣ지븨도라오니오히려머리거믄고돌머리붓그려ᄒᆞ노라

地隅

江漢山重阻風雲地一隅 江漢애 뫼히 여러 볼 險阻ᄒᆞ니 ᄇᆞᄅᆞᆷ과 구룸괏 ᄯᅡ ᄒᆞᆫ 모히로다

年年非故物處處是窮途 此ᄂᆞᆫ 言逐年遷從ᄒᆞ야 所見ㅣ 皆新物ㅣ오 遭亂道吾ᄒᆞ야 所遇ㅣ 皆窮途ㅣ라 ○히마다 ᄃᆞᆫ녀 거시 아니로소니 ᄭᅳᆮ마다 이 窮ᄒᆞᆫ 길히로다

喪亂秦公子悲涼楚大夫 秦公子ᄂᆞᆫ 王粲ㅣ 遭亂ᄒᆞ야 客荊州ᄒᆞ니라 楚大夫ᄂᆞᆫ 屈原ㅣ니 甫ㅣ 皆自況ᄒᆞ다 ○喪亂애 秦ㅅ 公子ㅣ오 슬픈 楚ㅅ 大夫ㅣ로다

平生心已折行路日荒蕪 平生애 먹던 ᄆᆞᅀᆞᆷㅣ ᄒᆞ마 것거 다니뎌ᄂᆞᆫ 길히 나날 거츠러다

過洞庭

鮫室圍青草龍堆隱白沙 鮫室ᄋᆞᆫ 博物志에 鮫人이 居水底織綃ᄒᆞ야 出人間賣之ᄒᆞ니라○鮫人의 지븐 프른 프리 둘엇고 龍堆ᄂᆞᆫ 힌 모랫 서리예 그윽ᄒᆞ얏도다

護堤盤古木迎棹舞神鴉 두들글 두펫ᄂᆞᆫ 녯 남기 서리엿고 비ᄎᆞᆯ 마자 神奇ᄅᆞ원 가마괴ᄂᆞᆫ 춤츠ᄂᆞ다

破浪南風正回檣

畏日斜 畏日ᄋᆞᆫ 夏日ㅣ라○믌겨ᄅᆞᆯ 헤뎌 가매 南風ㅣ 正ᄒᆞ고 빗대 도라 가매 저ᄐᆞᆫ 나리 기우럿도다

湖光與天遠直欲泛仙槎 仙槎ᄂᆞᆫ 見上 白沙驛註ᄒᆞ니라○ᄀᆞᆳ비치 하ᄂᆞᆯ과 다ᄆᆞᆺ 머니 곰 仙槎ᄅᆞᆯ ᄠᅴ오고져 ᄒᆞ노라

述懷上 古詩二十四首

述懷

去年潼關破妻子隔絕久 니건ᄒᆡ예 潼關ㅣ 허러디니 妻子와 隔絕호미 오라도다 今夏草木長脫身得西走 西走ᄂᆞᆫ 自賊中ᄋᆞ로 歸鳳翔也ㅣ라 ○ 올ᄒᆡ 녀르메 草木ㅣ 길어늘 모미 바사나 西ㅅ녀크로 ᄃᆞ로ᄆᆞᆯ 得ᄒᆞ라

麻鞋見天子衣袖露兩肘 삼신 신고 天子ᄅᆞᆯ 가 보ᅀᆞ오니 옷ᄉᆞ매예 두 ᄇᆞᆯ도기 낫도다

朝廷慜生還親故傷老醜 朝廷ㅣ 사라 도라오ᄆᆞᆯ 어엿비 너기고 親ᄒᆞᆫ 버든 늘거 더러우믈 슬허ᄒᆞᄂᆞ다

涕淚受拾遺流離主恩厚 울며 拾遺ㅅ 벼슬ᄒᆞ니 流離ᄒᆞ야 ᄃᆞᆫ뇨매 님금 恩惠

둗겁도다 柴門雖得去未忍即開口 柴門은指三川所居ᄒᆞ니

라 未忍은不欲遽遠天顔也ㅣ라○서브로 ᄒᆞᆫ門의비록시러곰갈디나ᄎᆞ마곧이블여

다몯호롸 寄書問三川不知家在否 유무롤브터三川ᄋᆞᆯ무로

ᄃᆡ아디몯ᄒᆞ리로다지 비이대잇ᄂᆞᆫ가몯ᄒᆞᆫ가 比聞同罹禍殺戮到

雞狗 比ᄂᆞᆫ近也ㅣ오罹ᄂᆞᆫ遭也ㅣ라○요ᄉᆞ 이예드로니ᄒᆞᆫ가지로禍難ᄋᆞᆯ맛나주

규미ᄃᆞᆰ가히 예니르도다 山中漏茅屋誰復依戶牖 몃가 온ᄃᆡ

시ᄃᆞᆫ새지븨뉘ᄯᅩ 戶牖에브턴ᄂᆞᆫ고 摧頹蒼松根地冷骨未朽

크른소나못불휘예주거므르드럿ᄂᆞ 幾人

니ᄯᅡ히치위ᄲᅧ석디몯ᄒᆞ얏ᄂᆞ니라

全性命盡室豈相偶면사ᄅᆞ미목숨올왓ᄂᆞᆫ고지비다어느서르모다이시리오 嶔岑猛虎場鬱結回我首嶔岑ᄋᆞᆫ山皃ㅣ라猛虎場ᄋᆞᆫ指賊所在라鬱結ᄋᆞᆫ愁皃ㅣ라○머흔모ᄃᆞᆫ범잇ᄂᆞᆫᄯᅡ해ᄆᆞᅀᆞᆷㅣ답답ᄒᆞ야내머리ᄅᆞᆯ돌아ᄇᆞ라노라

自寄一封書今已十月後ᄒᆞᆫ封유무ᄇᆞ됴ᄆᆞᄅᆞ브터이제ᄒᆞ마열ᄃᆞᆯ後ㅣ로다 反畏消息來寸心亦何有此ᄂᆞᆫ謂反謂消息ㅣ來傳凶問ᄒᆞ야使我寸心으로泯滅無有ㅣ리라○도로혀消息ㅣ올가젼노니죠고맛ᄆᆞᅀᆞᄆᆞᆫᄯᅩ므스기이시리오

漢運初中興生平老耽酒漢運ᄋᆞᆫ以光武로比肅宗ㅣ라○漢運ㅣ처엄다시興起ᄒᆞ시니내平生

어늘거여수ᄅᆞᆯ즐기노라 沉思歡會處恐作窮獨叟 此ᄂᆞᆫ甫ㅣ

言思昔日에與妻子로歡會ᄒᆞ고今恐妻子ㅣ死ᄂᆞᆫ이어든窮獨無歸也ㅣ라○즐겨몯

던ᄣᅢᄅᆞᆯ기피ᄉᆞ랑ᄒᆞ고窮困ᄒᆞᆫᄒᆞ올한아비ᄃᆞ욀가전노라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杜陵有布衣老大意轉拙 杜陵ᄋᆞᆫ甫의所居地也ㅣ라ᄡᅵ下로

至於歌慈絶ᄋᆞᆫ備述平生志願ᄒᆞ니라○杜陵에뵈옷니브니잇노니老大에ᄠᅳ디ᄆᆞ장

踈拙호라 許身一何愚竊比稷與契 내몸許호ᄆᆞᆯᄒᆞᆫ골ᄀᆞ티ᄌᆞ

모어리여稷과다몯契와ᄅᆞᆯ그으기곧토라ᄒᆞ더니 居然成濩落白首

甘契闊濩落은莊子애濩落無所容ㅣ라ᄒᆞᄂᆞ니猶廓落也ㅣ라契闊은勤苦也ㅣ
라○믄드시濩落호미ᄃᆞ외야셴머리예勤苦호ᄆᆞᆯ ᄃᆞᆯ히너기노라 蓋棺事則
已此志常覬豁 此ᄂᆞᆫ甫ㅣ言蓋棺ᄒᆞ야아萬事ㅣ方定故로稷契之志ᄅᆞᆯ
常覬望展布也ㅣ라○槨 두[illegible]ᄅᆞᆯ다대아이리ᄆᆞᆺ논디라이ᄠᅳ들샹녜훤히호ᄆᆞᆯᄇᆞ라노
라 窮年憂黎元嘆息腸內熱 ᄒᆡᄆᆞᆺ도록百姓을시름ᄒᆞ야嗟
嘆ᄒᆞ요니ᄇᆡᆺ 안히덥다래라 取笑同學翁浩歌彌激烈 激烈
은聲高也ㅣ라此ᄂᆞᆫ甫ㅣ志在堯舜君民而同學之入ㅣ反非笑之故로浩歌激烈ㅣ니
라○同學ᄒᆞᄂᆞᆫ사ᄅᆞ미우스믈듣고훤히노래블로니더옥소리놉도다 非無江

海志瀟灑送日月此ᄂᆞᆫ甫ㅣ言我ㅣ非無送老江海之志也ㅣ라○江海옛ᄠᅳ디瀟灑히나ᄅᆞᆯ보내오져ᄒᆞ미업디아니컨마ᄂᆞᆫ生逢堯舜君不忍便永訣이生애堯舜ᄀᆞᄐᆞ신님그믈맛나잇ᄉᆞ올ᄉᆡᄀᆞᆫ기리여희요ᄆᆞᆯᄎᆞᆷ디몯ᄒᆞ노라當今廊廟具構廈豈云缺葵藿傾太陽物性固莫奪豈云缺은以用人ᄋᆞ로다作室ᄒᆞ야言構架大厦애豈有缺少ᄒᆞ야高賢於小材ㅣ리오마ᄂᆞᆫ然甫ㅣ抱葵藿之誠ᄒᆞ야向慕於君ᄒᆞᄂᆞ니其性을不可移奪也ㅣ니라○이제ᄅᆞᆯ當ᄒᆞ야廊廟ㅣᄀᆞᄌᆞ니집지ᅀᅮ매엇디이저딘거시이시리오마ᄂᆞᆫ葵藿이ᄒᆡ向ᄒᆞ야기우리ᄂᆞᆫ物性ᄋᆞᆯ여ᄆᆞᆺ앗ᄠᅵ몯ᄒᆞᆯ거시라顧惟螻蟻輩

但自求其穴胡爲慕大鯨輒擬偃溟渤此ᄂᆞᆫ甫ㅣ
志在輔君而復自責曰如我微賤之輩ᄂᆞᆫ但自圖安其身ㅣ是矣어ᄂᆞᆯ何爲妄慕稷契之
事業고○도ᄅᆞ혀ᄉᆞ랑ᄒᆞᆫ된개야미두른오직졔졔굼글어들디어늘엇디큰고래ᄅᆞᆯ思
慕ᄒᆞ야곧바ᄅᆞᄅᆞᆯ기우리허리라녀기거내오以兹悟生理獨耻事
干謁兀兀遂至今忍爲塵埃沒干謁ᄋᆞᆫ求請ㅣ라兀兀ᄋᆞᆫ
不動皃ㅣ라此ᄂᆞᆫ甫ㅣ自悟窮達之理ᄒᆞ야遂安分而不干謁勢要ᄒᆞ야以求富貴ᄒᆞ고
兀兀窮居ᄒᆞ야甘爲汨沒塵埃也ㅣ니라○실로배生理ᄅᆞᆯ아라ᄒᆞ올로干謁올실사마
호몰븟그려이졔니ᄅᆞ도록ᄆᆞ마니이셔드트레배더쇼몬ᄎᆞ마ᄒᆞ노라終愧巢

興由未能易其節沉飮聊自遣放歌頗愁絶 沉飮은 耽飮也ㅣ라 此는 甫ㅣ 愧乎稷契巢許의 高尚其節ᄒᆞ야 雖飮酒遣懷而未乎免愁絶ㅣ니라 ○내 죵애 巢父와 다ᄆᆞᆺ 許由의 能히 그 節介를 고티디 아니호ᄆᆞᆯ 븟그리노라 ᄀᆞ장 술 머거 네 ᄠᅳ들 펴고 훤히 노래 브르노니 ᄌᆞ모 시름ᄃᆞ외도다

歲暮百草零疾風高岡裂 此以下는 述發京師事ᄒᆞ다 ○歲暮애 온가짓 프리 디니 ᄲᆞᄅᆞᆫ ᄇᆞᄅᆞ매 노ᄑᆞᆫ 뫼히 ᄠᅥ디놋다

天衢陰崢嶸客子中夜發 陰崢嶸은 欲雪之候ㅣ라 客子는 甫ㅣ 自謂라 ○하ᄂᆞᆳ 거리 어득ᄒᆞ야 노ᄑᆞᆺ거ᄂᆞᆯ 客子ㅣ 밦中에 나가노라

霜嚴衣帶斷指直不得結 서리 치위 으재

다ᄅᆞᆫ거늘ᄉᆞᆫ가라기고凌晨過驪山御榻在

다ᄉᆡ러곰미더몯호라

嵽嵲 嵽嵲은山皃ㅣ라此下로至難䨥遷ᅀᅳᆫ 述述經驪山所見之事也ㅣ라○洌ᄢᅦ

ᄅᆞᆯ凌犯ᄒᆞ야驪山ᄋᆞᆯ디나가니님금 안ᄌᆞ시ᄂᆞᆫ榻ㅣ뫼해노하잇도다 蚩尤塞

寒空蹴踏崖谷滑 蚩尤ᄂᆞᆫ乘輿羽蓋之旗 ㅣ라㊀旌旗ㅣ치운虛空

애며녯ᄂᆞ니모다ᄇᆞᆯ오 니뫼고리믯그럽도다 瑤池氣鬱律羽林相

摩戛 瑤池ᄂᆞᆫ指驪山溫陽ᄒᆞ니鬱律은直上 皃ㅣ라羽林은扈駕之軍ㅣ라○瑤池

ㅅ氣運ㅣ오ᄅᆞᄂᆞ니 羽林ㅣ서르ᄆᆞ갓다 君臣留歡會樂動殷樛

嶱 殷은去聲ㅣ라樛嶱은當作膠葛ᄒᆞ니膠 遠深皃ㅣ라○님금과臣下왜ᄢᅦ므리너

사歡娛ᄒᆞ시니音樂소리賜浴皆長纓與宴
뮈여훤ᄒᆞᆫ듸우리놋다
非短褐賜浴ᄋᆞᆫ唐書에天子ㅣ每歲十月에
幸華淸宮ᄒᆞ샤賜從臣浴ᄒᆞ시니라
長纓ᄋᆞᆫ侍臣之冠ㅣ라此ᄂᆞᆫ言賜浴與宴ㅣ
皆非賤者ㅣ라○주샤沐浴ᄒᆞᄂᆞᆫ다長纓
ᄒᆞᆫ사ᄅᆞᆷㅣ오이바디參預ᄒᆞᄂᆞ
닌더른옷니브니아니로다彤庭所分帛
本自寒女出鞭撻其夫家聚斂貢城闕彤庭ᄋᆞᆫ天
子之庭ᄋᆞᆫ以丹ᄋᆞ로飾之也ㅣ라○大闕入
블근ᄠᅳᆯ헤셔ᄂᆞᆫ화주시ᄂᆞᆫ布帛ᄋᆞᆫ本來로貧
寒ᄒᆞᆫ겨지브로브터나니그남지ᄂᆡ聖人筐
지블텨뫼화城闕에바톤거시라
篚恩實欲邦國活臣如忽至理君豈棄此物

筐篚恩은 筐篚예 盛幣ᄒᆞ야 賜群臣也ㅣ라
○聖人筐篚주시논 恩惠논 眞實로 나라ᄒᆞᆯ
사ᄅᆞ과뎌ᄒᆞ시ᄂᆞ니 臣下ㅣ萬一에 지그
기다ᄉᆞ론 돌므던이 너기면 님그미 엇디 이
거슬ᄇᆞ리고가
라ᄒᆞ시리오 多士盈朝廷仁者宜戰慄 此ᄂᆞᆫ 言仁
者ᄂᆞᆫ 當思君恩ᄒᆞ야 惻然戰慄ᄒᆞ야 以盡諸
國之事ㅣ니라○한 士ㅣ 朝廷에 ᄀᆞ독ᄒᆞ얏
ᄂᆞ니 仁者ᄂᆞᆫ 저허
ᄒᆞ미 맛당ᄒᆞ니라 況聞內金盤盡在衛霍室
內金盤은 上方器用ㅣ라 衛霍은 以比揚國
忠輩ᄒᆞ다○ᄒᆞᄆᆞᆯ며 드론 딘 안빗 金盤ㅣ 다
衛霍의지
빗도다 中堂有神仙烟霧蒙玉質 此ᄂᆞᆫ 言
國忠의
歌姬舞妓之美ᄒᆞ다 或去指貴妃ᄒᆞ니라○
中堂애 神仙ᄀᆞ톤 사ᄅᆞᆷ이 잇ᄂᆞ니 뉘와 안개

ᄉᆞ玉ᄆᆞ든고매씨엿도다 煖客貂鼠裘 悲管逐淸瑟 勸客

駝蹄羹 霜橙壓香橘 손을덥게호ᄃᆡ貂鼠갓오ᄉᆞ로ᄒᆞᄂᆞ니슬픈뎌히몰고거믄고애좃고소ᄂᆞᆯ勸호ᄃᆡ駝蹄ᄋᆡ羹ᄋᆞ로ᄒᆞᄂᆞ니서리마ᄌᆞᆫ튱자곳다온橘에ᄂᆞᆯ러노핫도다

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 블근칠ᄒᆞᆫ門에술와고기내어ᄂᆞᆯ길헤ᄂᆞᆫ어러주근사ᄅᆞᄆᆡ뼤잇도다

榮枯咫尺異 惆悵難再述 咫尺오言朱門ᅵ與甫의所經之道로不遠ᅵ라○榮華喜과이우로미咫尺ᄉᆞ이예다ᄅᆞ니ᄅᆞᆯ三몰難히다시니ᄅᆞ리로다

北轅就涇渭 官渡又改轍 涇渭ᄂᆞᆫ二水名ᅵ오官渡ᄂᆞᆫ地名ᅵ라此ᄂᆞᆫ言甫ᅵ過驪山ᄒᆞ야北趨涇

渭而抵官渡ᄒᆞ야又更向奉先縣也ㅣ라此
以下ᄂᆞᆫ述歸奉先時예道途觸目과及到家
情懷ᄒᆞ다○北으로술위를向ᄒᆞ야涇渭羣
ᄲᅵ나아가官渡애在술윗자최를돌고됴롸君
水從西下極目高崒兀 崒兀ᄋᆞᆫ高峻皃ㅣ라 ○모드므리西로브
터ᄂᆞ려오ᄂᆞ니눈마장 ᄲᅧ보ᄂᆞ니노파崒兀ᄒᆞ도다 疑是崆峒來恐觸
天柱折 崆峒天柱ᄂᆞᆫ皆山ㅣ라此ᄂᆞᆫ言群水 之來예其狀ㅣ如崆峒ㅣ來而觸折
天柱ᄒᆞ니此ㅣ詩人이誇大之言也ㅣ라○ 疑心혼된이崆峒山ㅣ와天柱를다딜어것
근가철 노라 河梁幸未坼枝撐聲窸窣 窸窣ᄋᆞᆫ聲 不安ㅣ나
○므레ᄃᆞ리幸혀ᄲᅳ디디아니ᄒᆞ니 피온나못서리예소릿窸窣ᄒᆞ놋다 行旅相

攀援川廣不可越길녀나그내셔르더위자바가ᄂᆞ니내히너버可히
건나디몯ᄒᆞᆯ돗도다老妻旣異縣十口隔風雪異縣ᄋᆞᆫ指奉先
ᄒᆞ니時예甫家ㅣ在焉ᄒᆞ다○늘근겨지비ᄒᆞ마다ᄅᆞᆫ고올ᄒᆡ잇ᄂᆞ니열히ᄇᆞᄅᆞᆷ과눈
에즈음ᄠᅳ도다誰能久不顧庶往共飢渴뉘能히오래도라보
디아니ᄒᆞ리오거의가飢渴호ᄆᆞᆯ다ᄆᆞᆺ호리라入門聞號咷幼子飢
已卒門의드러우ᄂᆞᆫ소리ᄅᆞᆯ드로니져믄아ᄃᆞ리주려ᄒᆞ마죽도다吾寧捨
一哀里巷亦嗚咽내엇디ᄒᆞᆫ번슬허ᄒᆞ몰ᄇᆞ리리오ᄆᆞᄋᆞᆯ도오히려우ᄂᆞ
다所愧爲人父無食致夭折붓그리논배사ᄅᆞ미아비두

외야ᄯᅩ뒤바비업쉬즐 豈知秋禾登貧窶有
어주구믈블위요라
倉卒此노言不知秋熟之時예家有飢死急
猝之禍也ㅣ라○ᄀᆞᄋᆞᆳ禾穀ㅣ니그ᄃᆡ
艱難ᄒᆞ야時急ᄒᆞᆫ일이 生常免租稅名不隷
솔고돈어느일리오
征伐撫迹猶酸辛平人固騷屑 騷屑은騷動
屑屑ㅣ니言
失所也ㅣ라此下노推己之窮ᄒᆞ야以及於
人ㅣ라○平生애상녜租稅바ᄃᆞᆯ몯免ᄒᆞ며
일후미사홈ᄒᆞ기에브텻디아니호디내事
迹올모져본된오히려슬프도소니상녜사
ᄅᆞ묘여ᄆᆞᆺ騷
屑ᄒᆞ리로다 默思失業徒因念遠戍卒憂端
齊終南澒洞不可掇 終南오山名ㅣ라澒洞
은亂皃ㅣ라○좀ᄌᆞᆷᄒᆞ

야ᄂᆡ生業일ᄒᆞᆫ무를ᄉᆞ랑ᄒᆞ며因ᄒᆞ야머리
가防戍ᄒᆞᄂᆞᆫ軍卒올ᄉᆡᇰ각호니시릆그티終
南山과ᄆᆞ두니頭洞ᄒᆞ야
주어ᄇᆞ리디몯ᄒᆞ리로다

壯遊 叙壯年經遊之迹ㅣ라

往者十四五出遊翰墨場斯文崔魏徒以我似班揚 崔魏ᄂᆞᆫ崔鄭州尙과魏豫州啓心ㅣ라班揚ᄋᆞᆫ班固楊雄ㅣ라○녜내나히열너티세글짓ᄂᆞᆫᄯᅡ해나노로니이글ᄒᆞᄂᆞᆫ崔魏무리내글로ᄡᅥ班楊ᄀᆞᆮ다ᄒᆞ더라

七齡思即壯開口詠鳳凰 詠鳳凰ᄋᆞᆫ張華ㅣ五歲예見畫鳳凰ㅣ어ᄂᆞᆯ客ㅣ命詠之ᄒᆞᆫ대隨口即成ᄒᆞ니라○나히닐구베ᄠᅳ디곧壯ᄒᆞ야이블여러鳳

凰올 으프라 九齡書大字有作成一囊 나히아호배 굴근字
ᄅᆞᆯ스니 지은 그리 ᄒᆞᆫ ᄂᆞ모치 ᄃᆞ외더라 性豪業嗜酒嫉惡懷剛
腸 性ㅣ豪宕ᄒᆞ야 술 즐교ᄆᆞᆯ 為業ᄒᆞ고 모딘 사ᄅᆞᄆᆞᆯ 아쳐러 세워든 ᄆᆞᄋᆞᆷᄋᆞᆯ 머구라
脫略小時輩結交皆老蒼 脫略오 輕易也ㅣ라 ○져믄 젓믈란
므던히 너기고 사괴요ᄆᆞᆯ 다 늘그니로 호라 飲酣視八極俗物都
茫茫 茫茫요 廣遠見ㅣ라 ○술 醉케 먹고 八極올 보니 世俗앳 萬物ㅣ 다 茫茫ᄒᆞ더
라 東下姑蘇臺已具浮海航 此下로 至欲罷不忘요 述遊吳
越之事ᄒᆞ다 ○東녀로 姑蘇臺로 ᄂᆞ려가 바ᄅᆞ래 ᄠᅵ올 비ᄅᆞᆯ ᄒᆞ마 ᄆᆡᆼᄀᆞ로라 到今

有遺恨不得窮扶桑 扶桑ᄋᆞᆫ在碧海中ᄒᆞ니라○이제 니르리 기튼 측호미 잇ᄂᆞ니 扶桑애 다ᄃᆞ로ᄆᆞᆯ 得디 몯호라 王謝風流遠闔廬丘墓荒 闔廬ᄂᆞᆫ 吳王ㅣ라○王導와 謝安의 風流ㅣ 멀오 闔廬의 무더믄 거츠렛더라

劒池石壁仄長洲芰荷香 劒池ᄂᆞᆫ在吳ᄒᆞ고 長洲ᄂᆞᆫ苑名ㅣ니 闔廬의 遊獵處ㅣ라○劒池옛 石壁ㅣ 嵯峨 기우럿고 長洲엣 蓮ㅅ고지 곳답도다

閶門北淸廟映回塘 閶門은 吳王ㅅ門ㅣ라 淸廟ᄂᆞᆫ 吳ㅅ文帝廟ㅣ라○노ᄑᆞᆫ 閶門ㅅ 北에 淸廟ㅣ 횟돈 못애 비취엿도다 每趨吳太白撫事淩浪浪 太白ᄋᆞᆫ 吳ㅅ始祖ㅣ니 廟在蘇州ᄒᆞ다 浪浪ᄋᆞᆫ 流皃ㅣ라○ᄆᆡ양 吳

入太白廟애가事迹ᄉᆞᆫ브아ㅣ付ᄒᆞ므를흘ᄅᆞ라枕戈憶勾踐渡浙想
秦皇勾踐은越王ㅣ니與吳로戰敗ᄒᆞ야所則枕戈ᄒᆞ야思欲報吳ᄒᆞ니라渡浙은
秦始皇ㅣ南遊ᄒᆞ야渡浙江ᄒᆞ니라○兵戈베오몸勾踐ᄋᆞᆯᄉᆞ랑ᄒᆞ고浙江건나몸秦皇
ᄋᆞᆯ스ᄌᆞ라蒸魚聞匕首除道哂要章蒸魚ᄂᆞᆫ吳人專諸ㅣ置匕
首魚炙腹中ᄒᆞ야進於王僚ᄒᆞ야因以刺僚ㅣᄒᆞ니라除道ᄂᆞᆫ朱買臣ㅣ初貧見棄於妻ㅣ
러니後拜會稽太守ᄒᆞ야懷印綬至郡ᄒᆞ야見故妻의除治道路ᄒᆞ니라○빈ᄑᆞ긔예匕
首劒이ᅀᅵ몸드르며길ᄒᆞᆺ글ᄭᅦ허라예印차ᅀᅵ몸웃ᄂᆞᆫ라越女天下白鑑
湖五月凉鑑湖ᄂᆞᆫ在會稽東門ᄒᆞ다○越入겨지븨ᄂᆞᆺ비ᄎᆞᆫ天下애ᄒᆡ오鑑湖

ᄂᆞᆫ五月에로ᄒᆞ도다 剡溪蘊秀異欲罷不能忘 剡溪ᄂᆞᆫ在會稽ᄒᆞ니라○剡溪ᄂᆞᆫ秀異호ᄆᆞᆯ蘊畜ᄒᆞ얏ᄂᆞ니말오져ᄒᆞ나能히닛디몯ᄒᆞ리로다 歸帆拂天姥中歲貢舊鄉 天姥ᄂᆞᆫ山名ㅣ니在吳ᄒᆞ다○도라올ᄇᆡᆺ돗ᄀᆞᆯ天姥山ᄋᆞᆯᄇᆞᆯ텨中歲예녯ᄀᆞ올ᄒᆡ貢擧ᄒᆡ요라 氣劘屈賈壘目短曹劉墻 壘ᄂᆞᆫ軍壘ㅣ니以科場ᄋᆞ로喻軍壘之戰에有勝負ᄒᆞ니라墻ᄋᆞᆫ論語에子貢曰賜之墻也ᄂᆞᆫ及肩ㅣ라ᄒᆞ니故曰短ㅣ라此ᄂᆞᆫ甫ㅣ自以詩賦로誇大之辭ㅣ라○氣運ᄋᆞ로屈原賈誼ㅣ辭壘ᄅᆞᆯ곧오누네ᄂᆞᆫ曹植劉楨의담ᄋᆞᆯ뎌ᄅᆞᆫ이너기노라 忤下考功第獨辭京兆堂 忤ᄂᆞᆫ逆也ㅣ라考功ᄋᆞᆫ唐武德初애以考功郎

ᄋᆞ로 監試貢擧ᄒᆞ니라 ○ 考功의 等第예 거
읍저디여 ᄒᆞᆫ올로 京尹의 堂애 가 下直ᄒᆞ라
放蕩齊趙間 裘馬頗淸狂 淸狂ᄋᆞᆫ 不狂而狂ㅣ니 猶白癡也ㅣ
라 此下로 至鸛葛强ᄂᆞᆫ 述遊齊趙之事ᄒᆞ다 ○ 齊와 趙와 ᄉᆞ이예 放蕩히 ᄃᆞᆫ녀 輕裘肥馬
로 ᄌᆞ모 여러 이ᄃᆞ뇨라
春歌叢臺上 冬獵靑丘旁 叢臺ᄂᆞᆫ 趙
王之臺ㅣ라 靑丘ᄂᆞᆫ 齊地라 ○ 보ᄆᆡ 叢臺ㅅ 우희셔 노래 브르고 겨으레 靑丘ㅅ ᄀᆞ애 山
行ᄒᆞ 라
呼鷹皂櫪林 逐獸雲雪岡 皂櫪林 雲雪岡ᄋᆞᆫ 皆齊地
라 ○ 皂櫪林에셔 매ᄅᆞᆯ 브르며 雲雪岡애셔 즘ᄉᆡᆼ을 ᄧᅩ초라
射飛曾縱鞚
引臂落鶖鶬 ᄂᆞᄂᆞᆫ 것 소노라 ᄒᆞ야 일ᄌᆞᆨ 석 ᄉᆞᆯ 노ᄒᆞ며 ᄇᆞᆯ홀 혀 鶖鶬ᄋᆞᆯ ᄂᆡ요롸

蘇侯據鞍喜忽如携葛彊 蘇侯ᄂᆞᆫ甫ㅣ自注 蘇預也ㅣ라葛彊

ᄋᆞᆫ晉人山簡이愛將ㅣ니甫ㅣ與蘇預로同獵 ㅣ如簡之携彊也ㅣ라○蘇侯ㅣ기ᄅᆞ마ᄅᆞᆯ

비겨셔즐기ᄂᆞ니므드시葛 彊ᄋᆞᆯ더브러왓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快意八九年西

歸到咸陽 此以下ᄂᆞᆫ或自敍己事ᄒᆞ며或述 時亂ᄒᆞ니라○여ᄃᆞ홉ᄒᆡᄅᆞᆯᄠᅳ데

헌히노다가西ㅅ녀크로 도라가咸陽애니르로라

許與必詞伯賞遊

實賢王 詞伯ᄋᆞᆫ詞人之長ㅣ라賢王ᄋᆞᆫ汝陽 王璡ㅣ라○나ᄅᆞᆯ許ᄒᆞ리로다ᄒᆞ리ᄂᆞᆫ

반ᄃᆞ시詞伯ㅣ오賞玩ᄒᆞ야 놀린眞實로어딘王ㅣ로다

曳裾置醴地奏

賦入明光 置醴ᄂᆞᆫ楚元王ㅣ敬穆生ᄒᆞ야設 醴ᄒᆞ니以比汝陽之待甫ㅣ라奏

賦ᄂᆞᆫ甫ㅣ獻三大禮賦ᄒᆞ니라◐醴酒듣노
付해옷기슬글그으고賦ᄅᆞᆯ엳좁그明光宮
의드
로카
天子廢食召群公會軒裳
軒裳ᄋᆞᆫ軒亭
簪裳ㅣ라甫
ㅣ奏三賦ᄒᆞ야ᄂᆞᆫ帝ㅣ奇之ᄒᆞ사待制集賢
院ᄒᆞ고宰相ㅣ試文章ᄒᆞ니가◐天子ㅣ라
몰그치고브르시고羣
公ㅣ軒裳ᄒᆞ고몬더라
脫身無所愛痛飲信
行藏
此ᄂᆞᆫ言辭河西尉ᄒᆞ고痛飲遊樂也ㅣ
라○모몰바사다앗기논배업서ᄆᆞ장
술어거셔나도니거나드
렷거나호올밋고이쇼다
黑貂寧免敝斑鬢
兀稱觴
거믄갓오ᄉᆞᆫ엇디허루믈免ᄒᆞ리오
어르누근구미테ᄆᆞ마니산자셔詠
盞ᄋᆞᆯ드
노라
杜曲晩耆舊四郊多白楊
杜曲ᄋᆞᆫ甫
의舊鄉ㅣ

라白楊은墳上之木ㅣ니言者舊ㅣ多死也ㅣ라○社曲ᄭᅴ ᄆᆞᄋᆞ맷 늘근 사ᄅᆞᆷ이 네 ᄆᆡ해 白楊木ㅣ ᄒᆞ도다

坐深鄉黨敬 日覺死生忙 坐ᄂᆞᆫ如坐罪之坐ㅣ라鄉黨敬은言者舊ㅣ皆死故로今復推甫爲敬也ㅣ라○鄉黨ㅅ 사ᄅᆞ미 恭敬ᄒᆞ요미 기프매 坐ᄒᆞ요니 나날 죽사리 ᄲᆞ리 왓보ᄆᆞᆯ 아노라

朱門任傾奪 赤族迭羅殃 朱門ᄋᆞᆫ宰相之門을以朱爲塗也ㅣ라赤族ᄋᆞᆫ誅三族也ㅣ라玄宗末年에將相ㅣ爭權傾奪而誅滅ᄒᆞ니라○朱門ㅣ ᄂᆞᆷ 기우리혀 아오ᄆᆞᆯ ᄆᆞᅀᆞᆷ조초 ᄒᆞ야 赤族ᄒᆞ야 거르 殃孼에 버므니라

國馬竭粟豆 官鷄輸稻粱 擧 論語에擧一隅ᄒᆞ면可知其三ㅣ라ᄒᆞ니

隅見煩費 引古惜興亡

此ᄂᆞᆫ言玄宗ㅣ舞馬ᄅᆞᆯ飼以豆粟ᄒᆞ며鬪鷄ᄅᆞᆯ養以稻粱ᄒᆞ니擧此一事ᄒᆞ면衆費ᄅᆞᆯ可知오引古證今ᄒᆞ면興亡ᄋᆞᆯ亦可知矣라○나랏ᄆᆞᆯ머규메粟豆ᄅᆞᆯ다ᄋᆞ며구읫ᄃᆞ리츄례稻粱ᄋᆞᆯ바티니호모ᄒᆞᆯ드러ᄡᅥ어즈러이虛費호ᄆᆞᆯ볼디니녯이ᄅᆞᆯ혀ᄡᅥ興ᄒᆞ며亡호믈슬타라

河朔風塵起岷山行幸長 河朔ᄋᆞᆫ祿山이起兵處ㅣ라岷山ᄋᆞᆫ言玄宗ㅣ幸蜀ㅣ라長ᄋᆞᆫ遠也ㅣ라○河朔애ᄇᆞᄅᆞᆷ과드틀왜닐어늘岷山애行幸ᄋᆞᆯ머리ᄒᆞ시ㅣ라

兩宮各警蹕萬里遙相望 兩宮ᄋᆞᆫ玄宗肅宗ㅣ라○두宮ㅣ警蹕ᄋᆞᆯ제여곰ᄒᆞ시니萬里예ᄊᆞᄉᆞ라히서르ᄇᆞ라시니라

崆峒殺氣黑少海旌旗黃 少海ᄂᆞᆫ東宮故事애太子ᄅᆞᆯ為少海라旌

旗黃은言爲天子ㅣ리○崆峒애殺伐ㅅ氣
運ㅣ어드우니太子ㅅ旌旗ㅣ누르니라

禹功亦命子涿鹿親戎行 禹ㅣ命子啓而啓ㅣ戰於甘ᄒᆞ니爾
命廣平王爲元帥ㅣ라黃帝ㅣ與蚩尤로戰
于涿鹿ᄒᆞ니喩肅宗ㅅ親征ㅣ라○禹ㅣ成
功ᄒᆞ매任아ᄃᆞᄅᆞᆯ命ᄒᆞ시고涿
鹿애戎行ᄋᆞᆯ親히ᄒᆞ시니라

翠華擁吳嶽

螭虎嚇豺狼 翠華ᄂᆞᆫ天子ㅅ羽葆ㅣ라螭虎ᄂᆞᆫ喩王師ᄒᆞ고豺狼ᄋᆞᆫ喩盜賊
ᄒᆞ다○翠華ㅣ吳嶽애ᄢᅵ엿
고螭虎ㅣ豺狼ᄋᆞᆯ므싀다

爪牙一不中胡

兵更陸梁 詩예予王之爪牙ㅣ라ᄒᆞ니此ᄂᆞᆫ
言將帥ᄒᆞ다中ᄋᆞᆫ去聲ㅣ니當也
ㅣ라陸梁ᄋᆞᆫ亂走皃ㅣ라此ᄂᆞᆫ言房琯ㅣ敗
于陳濤ᄒᆞᆫ대賊兵ㅣ陸梁也ㅣ라○爪牙ㅣ

ᄒᆞᆫ번맛디몯ᄒᆞᆫ대되兵馬ㅣ다시름ᄃᆞ외니라 大軍載草草凋瘵滿膏肓 大軍ᄋᆞᆫ官軍ㅣ라草草ᄂᆞᆫ勞苦皃ㅣ라膏肓ᄋᆞᆫ在心上鬲下ᄒᆞ니病入膏肓ᄒᆞ면難治니此ᄂᆞᆫ喩士卒이困疲之甚ᄒᆞ다○큰軍士ㅣ辛苦ᄅᆞ외니病ㅣ膏肓애ᄀᆞ독ᄒᆞ도다 備員竊補袞憂憤心飛揚 備員ᄋᆞᆫ甫ㅣ自謙為拾遺也ㅣ라○備員ᄒᆞ야그ᅀᆞ기袞職ᄋᆞᆯ돕ᄉᆞ와시름ᄒᆞ며애와텨ᄆᆞᅀᆞ미ᄂᆞᆯ옷ᄂᆞ다 上感九廟焚下憫萬民瘡 九廟焚ᄋᆞᆫ宗廟ㅣ為賊所焚ㅣ라○우ᄒᆞ론九廟ㅣ브레브토ᄆᆞᆯ感動ᄒᆞ고아래론萬民의헐므오ᄆᆞᆯ어엿비너교라 斯時伏青蒲廷諍守御牀君辱敢愛死赫怒幸無傷

青蒲ᄂᆞᆫ以青ᄋᆞ로緣蒲席ㅣ라漢ㅅ元帝ㅣ欲易太子ㅣ어늘史丹ㅣ伏青蒲而諫ᄒᆞ니라廷諍ᄋᆞᆫ當朝廷而諫ㅣ라守ᄂᆞᆫ諸也ㅣ라此ᄂᆞᆫ述房琯ㅣ戰敗免相이어늘甫ㅣ上疏諫ᄒᆞᆫ대帝怒ᄒᆞ야出爲華州司功ᄒᆞ니라○이時節에青蒲애굿브려뎌朝廷에뎌諫諍ᄒᆞ야御牀에나아가니그미受辱거시니내주구믈구틔여앗기리아ᄆᆞ장怒ᄒᆞ샤매幸혀傷害호미업소라

聖哲體仁恕宇縣復小康哭廟灰燼中鼻酸朝未央 此ᄂᆞᆫ言肅宗ㅣ收復京師ᄒᆞ시고素服哭廟ᄒᆞ시고ㅅ居大明宮ᄒᆞ야受朝也ㅣ라○聖哲ᄒᆞ신님그미仁恕ᄅᆞᆯ體ᄒᆞ시니天下ㅣ伍져기편안ᄒᆞ니라宗廟ᄅᆞᆯ블브튼서리예가우르시고고ᄒᆞᆯ싀여ᄒᆞ샤未央宮의뎌朝會바ᄃᆞ시

니라

小臣議論絶老病客殊方鬱鬱苦不展羽翮困低昂

此ᄂᆞᆫ言甫ㅣ時예棄官入蜀ᄒᆞ야不與議朝廷事而鬱鬱不得志ᄒᆞ야無復飛騰也ㅣ라○져고맛臣下의議論ㅣ그ᄎᆞ니늘ᄀᆞ고病ᄒᆞ야다ᄅᆞᆫ따해나그내ᄃᆞ외야오래ᄆᆞᅀᆞ미답답ᄒᆞ야심히펴디몯ᄒᆞ고ᄂᆞᆯ개드노호ᄆᆞᆯ困호라

秋風動哀壑碧蕙捐微芳

秋風은殺氣也ㅣ라蕙ᄂᆞᆫ香草ㅣ니以比君子ᄒᆞ니此ᄂᆞᆫ言吾子ㅣ遇亂世而不用也ㅣ라○ᄀᆞᅀᆞᆳᄇᆞᄅᆞ미슬픈묏고ᄅᆞ매우거든프ᄅᆞᆫ蕙草ㅣ져기곳다온내ᄅᆞᆯᄇᆞ리ᄂᆞ니라

之推避賞從漁父濯滄浪

避賞從ᄋᆞᆫ晉文公ㅣ賞從ᄒᆞᆫ者ㅣ어늘介之推ㅣ隱而死ᄒᆞ니甫ㅣ隨肅宗收復而爵賞

ㅣ不及故로以比之ᄒᆞ고又以漁父之事로
自況也ㅣ니라○之推ㅣ조차ᄃᆞ니더닐賞給
ᄒᆞ몰避ᄒᆞ고漁父ᄂᆞᆫ滄浪ㅅ므레시스니라 榮華敵勳業歲暮有
嚴霜 此ᄂᆞᆫ言立功業ᄒᆞ야榮華其身者ㅣ不能謙損而敗ᄒᆞ미如萬物ㅣ當歲暮ᄒᆞ야
有嚴霜之憂也ㅣ라○榮華ㅣ勳業에ᄀᆞᆯ오니도歲暮애치운서리잇ᄂᆞ니라 吾觀
鴟夷子才格出尋常 鴟夷子ᄂᆞᆫ范蠡의號ㅣ니佐勾踐破吳ᄒᆞ고乘
舟入海ᄒᆞ니其才格ㅣ高出尋常之人也ㅣ라○내鴟夷子ᄅᆞᆯ보니才格ㅣ샹녯사ᄅᆞ미
게ᄲᅡ혀나도다 群兇逆未定側佇英俊翔 此ᄂᆞᆫ望隱逸之士ㅣ
出而拯世亂也ㅣ라○한믈모딘사ᄅᆞ미逆亂ㅣ安定티몯ᄒᆞ니어딘사ᄅᆞ미ᄂᆞ라나ᄆᆞᆯ

기우시기들우노라

遣懷

昔我遊宋中惟梁孝王都 宋中ᄋᆞᆫ 即大梁ㅣ라 此下로 至鳧鷖ㅣ 空相呼ᄂᆞᆫ 叙遊宋中之事ᄒᆞ다 ○내 녜 宋中에 가 노로니 梁孝王의 都邑ㅣ러라

名今陳留亞劇則貝魏俱 陳留ᄂᆞᆫ 屬許州ᄒᆞ니다 亞ᄂᆞᆫ 言大梁形勝之名ㅣ 亞於陳留也ㅣ라 劇ᄋᆞᆫ 大也ㅣ니 言大梁政事之劇ㅣ 與貝魏二州로 相等也ㅣ라 ○일후믄 이젯 陳留에 버게오 크믄 貝魏와 ᄀᆞᆮ오니라

邑中九萬家高棟照通衢 ᄆᆞᄋᆞᆯ 안해 九萬 지빗 노ᄑᆞᆫ ᄆᆞᆯ리 훤ᄒᆞᆫ 길헤 비취엿도다

舟車

半天下主客多歡娛 비와 술윗 數ㅣ 天下애 半민ᄒᆞ고 主人과 손과ᄂᆞᆫ 歡樂ᄒᆞ미 하도다

白刃讎不義黃金傾有無殺人紅塵裡報答在斯須 此ᄂᆞᆫ言邑中豪富ㅣ多尚游俠ᄒᆞ며又能殺人復仇也ㅣ라○힌 갈ᄒᆞ로 義아니닐 怨讎ᄒᆞ고 黃金 술이시미 업수매 기우리혀 ᄡᅳ며 사ᄅᆞ몰 블근 드틀 소개 ᄲᅧ ᄌᆞ거든 가파 對答ᄒᆞ미 아니 ᄒᆞᆫ 디 데 잇더라

憶與高李輩論交入酒壚 壚ᄂᆞᆫ 築土爲之ᄒᆞᄂᆞ니 形如鍛鑪ᄒᆞ니 置酒其上ᄒᆞᄂᆞ니라○ᄉᆞ랑ᄒᆞᆫ 된 高適李白믈와 다ᄆᆞᆺᄒᆞ야사 괴요ᄅᆞᄆᆞᆯ 議論ᄒᆞ야 술ᄑᆞᄂᆞᆫ 뒤드려 가라 兩公

壯藻思得我色敷腴 藻思ᄂᆞᆫ 文思也ㅣ라 敷腴ᄂᆞᆫ 顏色ㅣ 悅懌皃ㅣ

라○두소니글ᄒᆞᄂᆞᆫᄠᅳ디壯ᄒᆞ니
나ᄅᆞᆯ어더顔色ㅣ깃거ᄒᆞ디라
氣酣登吹臺懷古視平蕪
술醉ᄒᆞᆫ氣運에吹臺예올라
녯이ᄅᆞᆯᄉᆞ랑ᄒᆞ야ᄭᅥ平ᄒᆞᆫ거
츤ᄭᅥᄒᆞᆯ
보롸
芒碭雲一去鴈鶩空相呼
芒碭ᄋᆞᆫ山
名ㅣ니漢
ᄉ高祖ㅣ隱於其間ㅣ어든上有雲氣ᄒᆞ니
니此ᄂᆞᆫ言雲去人ᄋᆞᆫᄒᆞ고但鴈鶩ㅣ相呼ㅣ
니懷古之意也ㅣ라○芒碭애구루미ᄒᆞᆫ번
나니거늘그려기와올히왜ᄒᆞᆫ갓서르브르
ᄂᆞ다
先帝正好武寰海未凋枯
凋枯ᄂᆞᆫ猶凋弊
라此ᄂᆞᆫ言玄宗
ㅣ恃天下富盛ᄒᆞ야好事邊功也ㅣ라此下
로至元和辭大爐ᄂᆞᆫ述時世之亂ᄒᆞ다○몬
졋님그미武事ᄅᆞᆯ즐기시니寰區
四海ㅣ凋枯ᄃᆡ아니ᄒᆞ얏더라
猛將收西

域長戟破林胡勇猛ᄒᆞᆫ將軍ㅣ西域ᄋᆞᆯ아ᄋᆞ며긴戈戟ᄋᆞ로林胡ᄅᆞᆯ헤티

니라百萬攻一城獻捷不云輸不云輸ᄂᆞᆫ言雖有勝負ᄒᆞ나但

獻捷微功ㅣ오未嘗言輸也ㅣ라輸ᄂᆞᆫ謂負也ㅣ라○百萬사ᄅᆞ미ᄒᆞᆫ城ᄋᆞᆯ티ᄂᆞ니그유

믈獻ᄒᆞᄋᆞᆸ고계우므란니ᄅᆞ디아니ᄒᆞ더라組練棄如泥尺土負

百夫組練ᄋᆞᆫ組甲被練也ㅣ라○組練ᄋᆞᆯᄇᆞ료ᄆᆞᆯ흙ᄀᆞ티ᄒᆞ고자맛ᄯᅡ앗노라ᄒᆞ야

온사ᄅᆞ몰져ᄇᆞ리니라拓境功未已元和辭大鑪拓ᄋᆞᆫ開也

ㅣ라大鑪ᄂᆞᆫ喩天地ᄒᆞ니라○邊境여른功ᄋᆞᆯ마키아니ᄒᆞ야셔큰和氣ㅣ큰블글여희

니라亂離朋友盡合沓歲月徂朋友ᄂᆞᆫ指高李라合沓ᄋᆞᆫ相繼

見ㅣ라 此下ᄂᆞᆫ 皆自叙己意ᄒᆞ니○亂ᄒᆞ야
여희여 ᄃᆞᆫ뇨매 버디 다 업스니 이 歲月ㅣ
디나가ᄀᆞᆺ다 吾衰將焉託存殁再嗚呼 再嗚呼ᄂᆞᆫ 高李相繼
而已也ㅣ라○내 衰老ᄒᆞ모ᄆᆞᆯ 쟝ᄎᆞᆺ 어듸 브트려뇨 살며 주구메 다시곰 슬허ᄒᆞ노라
蕭條益堪愧獨在天一隅 蕭條ᄒᆞ야 더옥 븟그려옴 즉ᄒᆞ니 호
올로 하ᄂᆞᆳ ᄒᆞᆫ ᄀᆞ애 왓노라 乘黃已去矣凡馬徒區區 乘黃은 駿
馬ㅣ니 比高李ᄒᆞ고 凡馬ᄂᆞᆫ 甫ㅣ 自比ᄒᆞ다 ○乘黃은 ᄒᆞ마 업거늘 사오나온 ᄆᆞᄅᆞᆫ ᄒᆞᆫᄀᆞᆺ
區區호라 不復有顏鮑繫舟卧荊巫 顏鮑ᄂᆞᆫ 以比高李之才ᄒᆞ
다○任顏延年과 鮑明遠ᄀᆞᄐᆞ니 잇디 아니ᄒᆞ니 ᄇᆡ ᄆᆡ오 荊州巫峽에 와 누엇노라 臨

飧吐更食常恐違撫孤 此ᄂᆞᆫ恐違撫養二公之孤子ᄒᆞ니朋友相恤之義也ㅣ니라○바ᄇᆞᆯ飽ᄒᆞ야도비와ᄐᆞ락ᄯᅩ머그락ᄒᆞ야撫孤ᄅᆞᆯ그르홀가ᄉᆞᆼ녜젼노라

上水遣懷

我襄太平時身病戎馬後 此下로至依蒲柳ᄂᆞᆫ述遣懷奔走之懷와人情交態之異ᄒᆞ니라○내太平ᄒᆞᆫ時節에衰老ᄒᆞ고모ᄆᆞᆯ戎馬ㅅ後에病호라

蹭蹬多拙爲安得不皓首 蹭蹬은失埶見ㅣ라○蹭蹬ᄒᆞ야ᄒᆞ논이러히踈拙호니엇디시러곰머리셰디아니ᄒᆞ리오

驅馳四海內童

稚日餬口 餬ᄂᆞᆫ寄食也ㅣ라○四海ㅅ안해驅馳ᄒᆞ야ᄃᆞᆫ뇨니아ᄒᆡ도히나날
ᄂᆞᄆᆡ게이블브터셔먹놋다 但遇新少年少逢親舊友 오직
새져믄사ᄅᆞᄆᆞᆯ맛나고親ᄒᆞᆫ녯벋맛나미젹도다 低顏下色地故人
知善誘後生血氣豪舉動見老醜 ᄂᆞᄎᆞᆯᄂᆞᄌᆞ기ᄒᆞ며비
ᄎᆞᆯᄂᆞᄌᆞ기ᄒᆞ야ᄃᆞᆫ니ᄂᆞᆫ什해빗버듣이대ᄀᆞᄅᆞ쵸ᄆᆞᆯ알어놀後生ᄋᆞᆫ血氣ㅣ豪華ᄒᆞ야내
舉動애늘그며디러우믈보ᄂᆞ다 窮迫挫曩懷常如中風走
窮困逼迫ᄒᆞ야ᄇᆡ픔엇뎐ᄠᅳ디것거디니샹ᄇᆡᄇᆞᄅᆞᆷ마자ᄃᆞᄂᆞᆷᄀᆞᄒᆞ라 一紀出
西蜀于今向南斗 一紀ᄂᆞᆫ十二年也ㅣ라○ᄒᆞᆫ紀예西蜀ᄋᆞ로셔나오

고이제南斗로向ᄒᆞ야가노라 孤舟亂春華暮齒依蒲柳 蒲柳

之資ᄂᆞᆫ望秋先零ᄒᆞᄂᆞ니此ᄂᆞᆫ喻易衰也ㅣ라○외로온ᄇᆡ예봄비치어즈러우니늘근

나ᄒᆞᆫ蒲柳ᄅᆞᆯ브토라 冥冥九疑葬聖者骨已朽 九疑ᄂᆞᆫ山名이

니葬舜處ㅣ라此下로至猶在舌ᄒᆞᆫ言聖王ㅣ不作ᄒᆞ야歲月ㅣ已久故로屈賈之忠온

人莫知而被患害也ㅣ니此ᄂᆞᆫ因到荊湖而言也ㅣ라○아ᄃᆞᆨᄒᆞᆫ九疑옛무더미여聖人

의ᄲᅧᄒᆞ마서것도다 蹉跎陶唐人鞭撻日月久 蹉跎ᄂᆞᆫ失時也

ㅣ라陶唐人온指羲和望舒ㅣ爲日月之御者ㅣ라鞭撻온猶驅逐ㅣ니言驅逐日月之

車ㅣ已久故로年華ㅣ易流也ㅣ라○蹉跎ᄒᆡ陶唐時節ㅅ사ᄅᆞᆷ이날와ᄃᆞᆯ올모라ᄃᆞᆫ노

머오라 도다 中間屈賈輩讒毁竟自取 中間애 屈原 賈誼ㅣ
무리 하료ᄆᆞᆯ 모ᄎᆞ대 스스로 어드니라 鬱沒二悲魂蕭條猶在
否 鬱抑沈沒ᄒᆞᆫ 두 슬픈 넉슨 괴오히 오히려 잇ᄂᆞᆫ가 업슨가 嶒崒淸湘石
逆行雜林藪 嶒崒ᄋᆞᆫ 山峻皃ㅣ라 此以下ᄂᆞᆫ 述篙工之精敏ᄒᆞ니라 ○노ᄑᆞᆫ
ᄆᆞᆯᄀᆞᆫ 湘水ㅅ 돌서리예 거스리 녀가 ᄆᆞᆯ 수플 서리예 잇고라 篙工密逞巧
氣若酣盃酒 ᄇᆡ ᄃᆞᆯ홀 사ᄅᆞ미 그으기 工巧호ᄆᆞᆯ 펴ᄂᆞ니 氣運ㅣ 수를 醉ᄒᆞᆫ ᄃᆞᆺ
ᄒᆞ도다 謌謳互激遠回斡明受授 謌謳ᄂᆞᆫ 篙工之謌ㅣ라 言
其操舟ㅣ 能回旋斡轉ㅣ 如此ᄒᆞ니 必拒師授ㅣ 明矣라 ○놀앳소리 서르 머리 激發ᄒᆞ

ᄂᆞ나비ᄅᆞᆯ두루힐훠미ᄇᆡ호며ᄆᆞᄅᆞ쵸미明白ᄒᆞ도다 善知應觸類各

藉穎脫手古來經濟才何事獨罕有穎脫ᄂᆞᆫ喩敏捷也ㅣ라此ᄂᆞᆫ言善知者ㅣ觀篙工의敏捷ᄒᆞ야觸類而推ᄒᆞ야他事애도各用穎脫之手ㅣ니若求經濟之才ᄅᆞᆯ知如操舟之妙者ㅣ면何獨罕有ㅣ리오求則必得ㅣ니此ᄂᆞᆫ因操舟事而推論ᄒᆞ니라○잘알리ᄂᆞᆫ당당ㅣ觸類ᄒᆞᆯ디니ᄂᆞᆯ마다제여곰穎脫ᄒᆞᆫ소ᄂᆞᆯ藉賴ᄒᆞᄂᆞ니녜로브터오매經濟ᄒᆞᄂᆞᆫ지조ᄂᆞᆫ이ᄂᆞ이례호올로이쇼미져[illegible]오 蒼

衆色晩熊挂玄蛇吼此及下聯은皆舟中所見ㅣ라○퍼런여러빗나조ᄒᆡ고ᄆᆞᆫ남기ᄃᆞᆯ엇고기ᄆᆞᆫ비야ᄆᆞᆫ우르놋다 黃羆在樹顚正

爲群虎守 누른 羆ㅣ 나못 그테 올아 잇ᄂᆞ니 표히 믌버믈 爲ᄒᆞ야 直ᄒᆞ야 잇도다 羸骸將何適履險顏益厚 시드러운 모ᄆᆞᆯ 장ᄎᆞᆺ 어드러 가ᄂᆞ니오 險ᄒᆞᆫ ᄃᆡ ᄇᆞᆯ와 ᄃᆞ뇨애 ᄂᆞ치 더옥 두터웨라 庶與達者論吞聲混瑕垢 混瑕垢ᄂᆞᆫ 謂汨沒俗累也ㅣ라 ○ 거의 通達ᄒᆞᆫ 사ᄅᆞᆷᄋᆞᆯ 더브러 議論홀 ᄃᆡ니 소리를 ᄉᆞᆷᄭᅵ고 허믈와 ᄲᅧᆺ 서리예 섯것노라

舟中苦熱遣懷奉呈陽中丞通簡臺省諸公 自澧州로 避亂之衡州 作ㅣ라 中丞은 陽濟오 諸公은 裴虬와 李勉ㅣ니 時예 共討藏玠ᄒᆞᆫ ᄃᆡ니라

媿為湖外客看此戎馬亂 湖外ᄂᆞᆫ指洞庭湖之外ㅣ니荊州ㅣ在洞庭湖外ᄒᆞ니라戎馬ᄂᆞᆫ指臧玠ㅣ殺崔瓘也ㅣ라○ᄀᆞᄅᆞᆷ밧긔와나그내ᄃᆞ외야셔이戎馬의亂보ᄆᆞᆯ붓그리노라 中夜混黎甿脫身亦奔竄 밤中에샹사ᄅᆞᆷ과섯거모미患難애버서나ᄯᅩᄃᆞ라수므라 平生方寸心反當帳下難嗚呼殺賢良不叱白刃散 此ᄂᆞᆫ言甫ㅣ以平生經世之心으로反逢帳下의殺賢元帥而不能救也ㅣ라○平生애方寸ㅅᄆᆞᅀᆞᄆᆞ로도ᄅᆞ혀帳下앳寇難ᄋᆞᆯ當ᄒᆞ요니슬프다어딘사ᄅᆞᆷ주기거늘힌갈ᄒᆞᆯ구죵ᄒᆞ야헤티다ᄀ몯ᄒᆞ라 吾非丈夫特沒齒埋氷炭 내丈夫의ᄢᅥ기아니라주ᄀ

도ᄅᆞᆨ 이름과 블와ᄅᆞᆯ ᄆᆞᄋᆞ매 무더 두리로다

恥以風疾辭胡然泊湘岸 븟그리노라 風病ᄋᆞ로ᄡᅥ 벼슬 마로더 므스그라 湘水ㅅᄀᆞ애 와 비ᄅᆞᆯ 미엿거니오

入舟雖苦熱垢膩可漑灌 비예 드리 비록 심히 더우나 벼ᄂᆞᆫ 어루 시스리로다

痛彼道邊人形骸改昏旦 道邊人ᄋᆞᆫ 遇亂而死者ㅣ라 ○ 뎌 긼ᄀᆞ애 주근 자ᄅᆞ미 결구리 아촘 나조히 다라가 몰ᄋᆞᆯ 히ᄒᆞᄂᆞ라

中丞連帥職封內權得按 十州ㅣ考連ㅣ니連 有帥ㅣㅣ라權得按ᄋᆞᆫ 言封疆之內를 刺史ㅣ 權得按察故로 得訶斯也ㅣ라 ○ 中丞은 連帥ㅅ 所任을 가졋ᄂᆞ니 封內를 權宜로 시러곰 按察ᄒᆞᄂᆞ니라

身當問罪先縣實諸

侯半모미罪무로매몯져호ᄆᆞᆯ當ᄒᆞᄂᆞ니ᄀᆞ올ᄒᆞᆫ真實로諸侯의게半만ᄒᆞᆫ이치로다

士卒既輯睦啓行促精悍軍卒ㅣᄒᆞ마輯睦ᄒᆞ、니녀러ᄇᆡ매ᄂᆞᆯ나며勇猛ᄒᆞ、니ᄅᆞᆯ뵈아갓놋다

似聞上游兵稍逼長沙館上游兵ᄋᆞᆫ道州刺史裴虬之兵ㅣ니道州ㅣ在湘水之上故로云上游ㅣ라○믈우흿兵ㅣ卒ㅣ졈졈長沙ㅅ지브로나아가ᄆᆞᆯ듣논ᄃᆞᆺ호라

隣好彼克修天機自明斷隣好修ᄂᆞᆫ陽濟裴虬等ㅣ為崔瓘ᄒᆞ야討玠也ㅣ라○이웃사괴요ᄆᆞᆯ뎌能히닷ᄂᆞ니하ᄂᆞᆳ機謀ㅣ스스로ᄇᆞᆯ기決斷ᄒᆞ、놋다

南圖卷雲水北拱戴霄漢卷雲水ᄂᆞᆫ喩掃除暴亂ㅣ라戴霄漢ᄋᆞᆫ言尊王室也ㅣ라○南녀크가圖

謀ᄒᆞ야구룸과믈와ᄅᆞᆯ거더ᄇᆞ리교美名光
뷔녀그로ᄋᆞᆯ워러ᄒᆞ놀ᄒᆞᆯ이리로다

史臣長策何壯觀此ᄂᆞᆫ言除暴亂尊王室ᄒᆞᆫ
논美名ㅣ光于史筆ㅣ니

其計策ㅣ甚壯也ㅣ라○아ᄅᆞᆷ다온일ᄒᆞ미
史記ᄂᆞᆫ臣下의게빗나리로소니긔혜아미
묘묘ᄌᆞ모보매
壯大ᄒᆞ도다 驅馳數公子咸願同伐叛聲

節哀有餘夫何激衰懦此ᄂᆞᆫ言裴虬陽濟等
ㅣ共伐臧玠而哀崔
瓘ᄒᆞ니其英聲節義ㅣ是以振激甫之衰懦
ㅣ라○ᄃᆞ려가ᄂᆞᆫ두어公子ㅣ다ᄒᆞᆫ삐叛ᄒᆞᆫ
닐티죄顔ᄒᆞ노ᄑᆞ더의聲節ㅣ슬ᄒᆞ미삭도
소니엇디늙고게으른ᄆᆞᄋᆞᆷ을니르왇거니
오 偏裨表三上鹵莽同一貫鹵莽ᄂᆞᆫ不明也
ㅣ라此ᄂᆞᆫ言擴

玠의 將卒ㅣ 上表ᄒᆞ야 陳玠의 無罪ᄒᆞ니 其
不明之罪ㅣ 同一貫也ㅣ라 ○ 버근 將帥ㅣ
세 번 表ᄅᆞᆯ 올이ᄋᆞ오니 鹵
莽ᄒᆞ미 ᄒᆞᆫᄢᅴ 유메 곤도다

始謀誰其間回首增憤惋

始謀ᄂᆞᆫ 謂謀爲上表也ㅣ라 ○ 처엄
何ᄒᆞ몰 그ᄉᆞ이예 ᄃᆡ 뉘ᄒᆞ고 ᄇᆡ머닐
도ᄅᆞ혀 ᄃᆡ애와텨
ᄒᆞ몰 더으노라

宗英李端公守職甚昭煥

變通迫賢地謀畫爲得筭

宗英ᄋᆞᆫ 宗室之英
秀者ㅣ라 端公ᄋᆞᆫ
御史之稱ㅣ니 指李勉ᄒᆞ니 自御史로 爲廣
州刺史ᄒᆞ야 亦討玠而擇賢從之人ᄒᆞ야 以
安衆心ᄒᆞ니 其權變謀畫ᄋᆞᆫ 深不可測也ㅣ
라 ○ 宗英엣 李端公ㅣ 所任 가져슈믈 甚히
ᄇᆞᆯ기ᄒᆞ놋다 迫賢ᄒᆞᆫ ᄯᅡ해 權變ᄒᆞ몰 通히 王
ᄒᆞ니 그 謀畫ᄋᆞᆯ 어느 시러곰 혜아리리오

室不肯微凶徒略無憚 王室ㅣ사오나이ᄃᆞ외요ᄆᆞᆷ 즐기디 아니ᄒᆞᄂᆞ니 모단 무른 잡고도ᄯᅵ리디 아니ᄒᆞᄂᆞ다 此流須卒斬神器資强幹 神器及幹요皆指王室ᄒᆞ다○이 무른 모로매 다 斬伐ᄒᆞᆯ디니 神器ᄂᆞᆫ 웃드미 强盛킈 ᄒᆞᆯ 몸資賴ᄒᆞᆯ디니라 扣寂豁煩襟皇天照嗟嘆 此ᄂᆞᆫ 言扣擊寂寞而作詩ᄒᆞ야以豁煩悶之懷ᄒᆞᄂᆞ니 天實知我心也ㅣ니라○寂寞ᄒᆞᆫ 몸扣發ᄒᆞ야 답답ᄒᆞᆫ ᄆᆞᄋᆞᄆᆞᆯ 훤히 ᄒᆞ노니 큰 하ᄂᆞᆯ히 내 嗟嘆호ᄆᆞᆯ 비취여 겨시니라

詠懷二首

人生貴是男丈夫重天機 人生애 남진ᄃᆞ외요미 貴ᄒᆞ고 丈夫

ᄂᆞᆫ天機ᄅᆞᆯ重히니기ᄂᆞ니라 未達善一身得志行所為 此ᄂᆞᆫ

言窮則獨善其身ㅣ오達則兼善天下ㅣ니라○達티몯거든ᄒᆞᆫ모ᄆᆞᆯ善히ᄒᆞ고ᄠᅳ들得

ᄒᆞ야도ᄒᆞᄂᆞᆫ이ᄅᆞᆯ行ᄒᆞᆯ디니라 嗟余竟轗軻將老逢艱危 轗軻

ᄂᆞᆫ失志皃ㅣ라○슬프다나ᄂᆞᆫᄆᆞᄎᆞ매ᄠᅳ들일허장ᄎᆞᆺ늘구매艱難ᄒᆞ야비ᄃᆞ라오ᄆᆞᆯ맛

낫노라 胡羯逼神器逆節同所歸 同所歸ᄂᆞᆫ言逆節之人ㅣ

同聚而為亂也ㅣ라○되ᄊᆞᆺ기神器ᄅᆞᆯ侵逼ᄒᆞ니節義예거슬ᄠᅳᆫ사ᄅᆞ미가ᄂᆞᆫ배ᄒᆞᆫ가지

로다 河洛化為血公侯草間啼 言河洛之間ㅣ鬪格而流血ᄒᆞ

고公卿ㅣ奔竄草間也ㅣ라○河와洛괏ᄉᆞ이變化ᄒᆞ야피ᄃᆞ외니公侯ㅣ플ᄉᆞ이예셔

우ᄒᆞ놋 西京復陷沒翠蓋蒙塵飛 西京은長安ㅣ라○西京ㅣ佐盜賊의게뼈디니天子ㅅ프른盖ㅣ드틀무텨ᄂᆞ니라 萬姓悲赤子兩宮棄紫微 赤子ᄂᆞᆫ言民也ㅣ라兩宮ᄋᆞᆫ玄宗肅宗ㅣ라紫微ᄂᆞᆫ帝座ㅣ라 ○萬姓오뒤믄ᄌᆞ식ㅣ슬픈ᄃᆞᆺᄒᆞ니두宮오御座ᄅᆞᆯᄇᆞ리고가시니라 倏忽向二紀姦雄多是非 多是非ᄂᆞᆫ安史ㅣ相繼也ㅣ라○믄드시스므나ᄆᆞᆫᄒᆡᄃᆞ외여가ᄂᆞ니모딘사ᄅᆞ미외니하도다 本朝再樹立未及貞觀時 本朝ㅣ다시니르와다시나貞觀ㅅ時節온맛ᄃᆡ몯ᄒᆞ리로다 日給在軍儲上官督有司 날로給足히ᄒᆞ논거시軍糧儲備호매잇ᄂᆞ니上官

ㅣ有司ᄅᆞᆯ督責ᄒᆞ놋다 高賢迫形勢豈暇相扶持 此ᄂᆞᆫ言進
用者ㅣ以勢相援ㅣ이니何暇扶持於甫ㅣ리오○노ᄑᆞᆫ어딘사ᄅᆞ미形勢에逼迫ᄒᆞ야
ᄃᆞ니거니어느餘暇애서르더위자ᄇᆞ리오 疲薾苟懷策棲屑無
所施 ᄀᆞᆺᄇᆞ며시드리오매잢간謀策ᄋᆞᆯ머굼건마ᄂᆞᆫᄇᆞᄋᆞ처ᄃᆞᆫ닐시ᄠᆡᄅᆞᆯᄇᆡ업도다
先王實罪己愁痛正爲玆 罪己ᄂᆞᆫ肅宗ㅣ卽位ᄒᆞ샤下詔自責
ᄒᆞ시니라愁痛ᄋᆞᆫ言不能用賢ᄒᆞ야以致隆平ᄋᆞ로爲限也ㅣ라○先王ㅣ眞實로모ᄆᆞᆯ
罪責ᄒᆞ시니시름ᄒᆞ며슬히ᄒᆞ샤ᄃᆞᆫ正히이ᄅᆞᆯ爲ᄒᆞ시니라 歲月不我與
蹉跎病於斯 不我與ᄂᆞᆫ言歲月ㅣ易流也ㅣ라蹉跎ᄂᆞᆫ失時皃ㅣ라○歲月

ㅣ날와다뭇잇디아니ᄒᆞᄂᆞ니蹉跎히예와病ᄒᆞ얏노라夜看酆城氣回首蛟龍池寶劒ㅣ埋於酆城ᄒᆞ니其氣ㅣ上徹斗牛ᄒᆞ니라看劒氣與蛟龍ᄋᆞᆫ喻有飛騰之志니라○ᄇᆞᄆᆡ酆城엣氣運ᄋᆞᆫ보며蛟龍잇ᄂᆞᆫ모ᄉᆡ머리도ᄅᆞ혀보노라

齒髮已自料意深陳苦詞此ᄂᆞᆫ言甫ㅣ雖知已老無能爲也ㅣ나但意深故로陳此苦詞니라○니와머리와ᄅᆞᆯᄒᆞ마내혜언마ᄂᆞᆫᄠᅳ디기퍼苦ᄅᆞ왼말ᄉᆞ몰베프노라

邦危壞法則聖遠益愁慕壞法則은言祿山ㅣ紊紀綱이니라聖遠ᄋᆞᆫ言不見聖人之治라○나라히危亂ᄒᆞ야法ㅣ破壞ᄒᆞ니ㅣ聖人ㅣ멀셔더욱시름

ᄒᆞ야思慕ᄒᆞ노라

飄飄桂水遊悵望蒼梧暮 飄飄ᄂᆞᆫ遠行皃ㅣ라悵望ᄋᆞᆫ謂聖遠故로思虞舜也ㅣ라○머리와桂水에노라셔蒼梧ㅅ나조ᄒᆡ슬허ᄇᆞ라노라

潛魚不銜鉤走鹿無反顧 此ᄂᆞᆫ言物皆有避患之意라○潛藏ᄒᆞᆫ고기낙ᄉᆞᆯ므디아니ᄒᆞ며ᄃᆞᄂᆞᆫ사ᄉᆞ미도라보디아니ᄒᆞᄂᆞ다

皦皦幽曠心拳拳異平素 皦ᄂᆞᆫ明也ㅣ라拳拳ᄋᆞᆫ奉持也ㅣ라此ᄂᆞᆫ言亂離之際예不得遂平昔幽曠之心也ㅣ라○ᄇᆞᆯ곤幽隱閑曠ᄒᆞᆫᄆᆞᅀᆞᄆᆞᆯ가져쇼미녜와달오라

衣食相拘閡朋知限流寓 옷과밥과서르나ᄅᆞᆯ걸위엿고버든두루ᄃᆞᆫ녀브터쇼매限隔ᄒᆞ얏도다

風濤上春沙千里浸江

擣보ᄅᆞ매ᄇᆞᆰ겨리ᄇᆞᆰ모래예오ᄅᆞᄂᆞ니十里예ᄇᆞᆰ곳남ᄀᆞᆯ조ᄆᆞᆺ도다逆行小

吉曰時節空復度少吉曰은言風波之險也ㅣ라○거스리녀매됴ᄒᆞᆫ

나리져그니時節을쇽절업시ᄯᅩ디내노라井竈任塵埃舟航煩

數具任塵埃ᄂᆞᆫ言貧不炊爨也ㅣ라數具ᄂᆞᆫ頻數具舟而乘行也ㅣ라○우믈와브

어븨드트를므던히너기고ᄇᆡ를어즈러이ᄌᆞ조ᄆᆡᆼᄀᆞ노라牽纏加老病

瑣細隘俗務버므럿ᄂᆞᆫ늘구메病ㅣ더으고ᄇᆞᅀᆞ촌時俗앳이디조보왜도

다萬古一死生胡爲是名數名數ᄂᆞᆫ爵名之數ㅣ라○萬古

애주그며사로미ᄒᆞᆫ가지니엇디名數를해ᄒᆞ라오多憂汙桃源拙計

泥銅柱 시르미하䏈源을더러ㅣ고헤미跡 揣ᄒᆞ야銅柱에와泥滯ᄒᆞᆫ곳二타

未辭炎瘴毒擺落跋涉懼 草行曰跋ㅣ오水 行曰涉ㅣ라○더

온ᄯᅡ햇더운병ㅣ므ᄃᆡ로ᄆᆞᆯ마디몯 ᄒᆞ니도뇨매ᄭᅥ곡믈ᄇᆡ려ᄇᆞ려리아 虎狼窺

中原爲得所歷住 此ᄂᆞᆫ言盜賊ㅣ亂ᄒᆞ야不 可爲久住計也ㅣ라○虎

狼ㅣ中原을엿보ᄂᆞ니엇디시 러곰ᄀᆞ나ᄀᆞᆺ논ᄯᅡ해머믈리오 葛洪及許靖

避世常此路 葛洪과許靖ㅣ世ᄅᆞᆯ避호 ᄆᆞᆯ당상이길ᄒᆞ로ᄒᆞ니라 賢愚

誠等差自受合馳騖 言葛許ᄂᆞᆫ乃能避世ᄒᆞ 고甫ᄂᆞᆫ困於馳騖ᄒᆞ니

豈非賢愚ㅣ有等差ㅣ리오○어딜며어륜

미진실로差等ㅣ잇ᄂᆞ니두루도뇨미合當

호믈내受ᄒᆞ얏노라嬴齊且如何魄奪針灸屢시드러우며져
위운믄任엇디오닉슬아여信任을ᄌᆞ조ᄒᆞ라擁滯僮僕慵稽留篙
師怒머므러슈매ᄌᆞᆺ돌치게으르고머므러슈매비다ᄒᆞᆯ사ᄅᆞ미怒ᄒᆞᄂᆞ다終
當挂帆席天意難告許難告許ᄂᆞᆫ言하놊브늘아디몯ᄒᆞᆯ서내이
ᄅᆞᆫ告許호미어려올시라○ᄆᆞᄎᆞ매반ᄃᆞ기ᄇᆡᆺ돗ᄀᆞᆯᄃᆞ라나가리니하ᄂᆞᆳᄠᅳ든告許ᄒᆞ기
어렵도다南為祝融客勉強親杖屨結託老人星
羅浮展衰步祝融ᄋᆞᆫ南嶽峯名이라老人星ㅣ在南極ᄒᆞ고羅浮山ㅣ在嶺
南ᄒᆞ니라○南녀그로祝融ㅅ客ㅣᄃᆞ외야고돈과杖屨로親치ᄒᆞ야老人星을보디羅

浮山애 衰老호
거르믈 펴리라

寫懷二首

勞生共乾坤何處異風俗 人生애 곳ᄇᆞ미 乾坤안해 ᄒᆞᆫ가지로소니 어느 고대 風俗ㅣ 다ᄅᆞ리오

冉冉自趨競行行見羈束 冉冉은 漸進皃ㅣ라 見羈束은 不自伸也ㅣ라○冉冉히 스스로 ᄃᆞ토아 ᄃᆞᆫ녀 셔녀며 녀 덕ᄆᆡ여슈 믄브노라

無貴賤不悲無富貧亦足 言賤之悲와 貧之不足은 由富貴者ㅣ形之也ㅣ니 수에 蔑其富貴故로 賤亦不悲며 貧亦足也ㅣ라○貴호ᄆᆞᆯ 업시 너기논디라 賤ᄒᆞ야도 슬프디 아니ᄒᆞ고 가ᄋᆞ며뇸 업시 너기ᄂᆞᆫ디라 가난

ᄒᆞ야도任是히너기노라萬古一骸骨隣家遞歌哭此ᄂᆞᆫ言自古人生同歸於死而不得常存ㅣ니何必有樂有哀ㅣ리오○萬古애주거뼈ᄂᆞ외요미ᄒᆞᆫ가지어ᄂᆞᆯ이웃지비서르ᄂᆞᆯ애브르리도이시며울리도잇도다鄙夫到巫峽三歲如轉燭鄙夫ᄂᆞᆫ甫ㅣ라轉燭ᄋᆞᆫ言無定也ㅣ라○鄙夫ㅣ巫峽에니르러오니세ᄒᆡᄃᆞᆯ옮ᄂᆞᆫ燭ᄀᆞᆮ도라全命甘留滯忘情任榮辱性命ㅣ오라시실서留滯를ᄃᆞᆯ히너기고世情올니져셔榮辱올그텬치너기노라朝班及暮齒日給還脫粟朝班ㅣ늘근나ᄎᆡ니르니날마다供給ᄒᆞᄂᆞᆫ거시도ᄅᆞ혀비플바ᄉᆞᆫ조ᄡᆞᆯ밥이로다編蓬石城東采藥山

北谷ᄒᆞ니라○石城ㅅ東녀긔 다봇ᄋᆞᆯ 엿거編蓬은作茅屋也ㅣ라石城은在夔州

집 짓고 뫼뒷 고래 藥을 ᄭᅵ요라 用心霜雪間不必條蔓綠此ᄂᆞᆫ

言能守松柏霜雪之操ㅣ오不爲紛華嬌媚之情ㅣ라○이 서리와 눈과 ᄉᆞ이예 ᄆᆞᅀᆞᄆᆞᆯ

ᄡᅳ노니 구틔여 가지와 너ᄎᆞ릐 괴러ᄒᆞᆯ디 아니니라 非關故安排曾是

順幽獨此ᄂᆞᆫ言我心ㅣ非關於勉强安排라實順吾의幽獨之情也ㅣ니라○부

러 지ᅀᅥ ᄑᆡ요매 關係ᄒᆞᆫ디 아니라 일ᄌᆞᆨ ㅣ 幽獨ᄒᆞ매 順ᄒᆞᆯ시니라 達士如弦

直小人似鉤曲曲直吾不知負暄候樵牧此ᄂᆞᆫ

不辨人之曲直ᄒᆞ야忘世事而唯負暄送日也ㅣ라○通達ᄒᆞᆫ 사ᄅᆞᄆᆞᆫ 활시울ᄀᆞ티 곧고

小人ᄋᆞᆫ낛ᄆᆞ티고ᄇᆡ니고ᄇᆡ며고ᄃᆞ믈내모ᄅᆞ고더운횟비ᄎᆞᆯ져산자서나모뷔며ᄃᆞ쇼머기ᄂᆞᆫ사ᄅᆞᄆᆞᆯ기들우노라

夜深坐南軒 明月照我膝 바미깁도록南軒에안자쇼니ᄇᆞᆯᄀᆞᆫᄃᆞ리내무루페비취엿도다

驚風翻河漢 梁棟已出日 ᄂᆞᆯ라온ᄇᆞᄅᆞ미河漢애두위잇ᄂᆞ니집ᄆᆞᆯ리ᄇᆞᆯ셔ᄒᆡ돋도다

群生各一宿 飛動自儔匹 羣生ㅣ各各ᄒᆞᆫ번자고ᄂᆞᆯ며뮈유미제여곰ᄧᆞᆨᄒᆞ얏도다

吾亦驅其兒 營營為私實 營營ᄋᆞᆫ馳逐皃ㅣ라○나도ᄯᅩ아ᄒᆡᄅᆞᆯ모라營營ᄒᆡ야ᄡᅥ口實올ᄒᆞ노라

天寒行旅稀 歲暮日月疾 하ᄂᆞᆯ히치

위길녈나그네드므니歲暮애날도리녈리가놋다榮名忽中人世亂
如蟣虱榮華로원일후미믄득시르미게마치면世ㅣ어즈러운제벼록과니브
더음ᄀᆞᄐᆞ니라古者三皇前滿腹志願畢胡爲有結
繩陷此膠與漆此ᄂᆞᆫ言上古애民淳俗朴故로實欲ᄒᆞ야所願을易成ᄒᆞ
더니結繩之後에民僞日起ᄒᆞ며是非交搆ᄒᆞ야如膠漆之難解라○녜三皇ᄋᆞ토아란
비예ᄆᆞ독ᄒᆞᆫᄠᅳᆮ願을다ᄒᆞ더니엇더結繩ㅣᄋᆡ녀이ᄑᆞᆯ와다못오새ᄇᆡ디니오禍
首燧人氏厲階董狐筆此ᄂᆞᆫ言燧人氏敎人烹飪ᄒᆞ니嗜欲之心
ㅣ生ᄒᆞ고董狐ㅣ直筆而是非之端ㅣ起也ㅣ라○災禍ᄋᆡ처어믄燧人氏오亂ᄋᆡᄃᆞ라

ᄂᆞᆫ董狐의부디니라 君看燈燭張 轉使飛蛾密 此ᄂᆞᆫ又設喩ᄒᆞ
야言有燈則有蛾ㅣ오有欲則有爭ㅣ니라○그ᄃᆡᄂᆞᆫ燈燭이펴쇼몰보라곧ᄂᆞᄂᆞᆫ나ᄇᆡ
로ᄒᆞ여密近케ᄒᆞᄂᆞ니라 放神八極外 俛仰俱蕭瑟 蕭瑟은猶
寂寥無塵雜也ㅣ라此ᄂᆞᆫ言惡世俗而欲放懷於八極之外也ㅣ라○八極밧긔精神을
펴ᄇᆞ려구브며울어러보니다蕭瑟ᄒᆞ도다 終契如往還 得匪合
仙術 此ᄂᆞᆫ言契悟生死ㅣ如人之往而還ㅣ면豈非合於神仙之術也ㅣ리오○ᄆᆞ
ᄎᆞᆷ매가락오락홈ᄀᆞ투몰알면서려곰仙術에맛디아니ᄒᆞ리아

遣遇

磬折辭主人開帆駕洪濤 磬折은腰曲ㅣ如磬形之折ㅣ니言其恭也ㅣ라○磬折ᄃᆞᆺᄒᆞ야主人ᄋᆞᆯ여희오빗돗ᄀᆞᆯ여러큰믌겨레메여가락 春水滿南國朱崖雲日高 朱崖ᄂᆞᆫ南海地名ㅣ라○봄므리南國에ᄀᆞᄃᆞᆨᄒᆞ니朱崖옌구루멧ᄒᆡ놉도다 舟子廢寢食飄風爭所操 ᄇᆡᄃᆞᆯ홀사ᄅᆞ미자며밥머구믈廢ᄒᆞ고ᄡᅳ른ᄇᆞᄅᆞ매ᄇᆡ잡쥐요ᄆᆞᆯᄃᆞ토아ᄒᆞᄂᆞ다 我行匪利涉謝爾從者勞 내의녀비利ᄒᆞ건나미아닐시너조ᄎᆞᆫ사ᄅᆞᄆᆞᆯ히ᄅᆞ바호ᄆᆞᆯ愧謝ᄒᆞ노라 石間采蕨女鬻菓輸官曹丈夫死百役暮返空村號 此ᄂᆞᆫ議役斂ㅣ煩重也ㅣ라○ᄃᆞᆰ소이예고사

리귀ᄂᆞᆫ겨지비ᄂᆞ몰ᄒᆞ라구위예바티놋다 남지ᄂᆞᆫ온가짓後使애가ᄌᆞᆨ거놀나조히뵌

ᄆᆞᅀᆞᆯ히도라 가ᄋᆞ놋다 聞見事略同刻剝及錐刀 及錐 刀ᄂᆞᆫ

言取斂ㅣ非特大者ㅣ라雖如錐刀瑣末之 剝라도猶及之也ㅣ라○드르며보ᄂᆞᆫ이라

뎌기ᄆᆞ도니刻剝ᄒᆞ미 錐刀새미최가놋다 貴人豈不仁視汝如

莠蒿 貴ᄒᆞᆫ사ᄅᆞᄆᆞᆫ엇디仁티아니ᄒᆞ리오 만쇼너를보ᄃᆡ프성귀마티ᄒᆞ놋다 索

錢多門戶喪亂紛嗷嗷 多門戶ᄂᆞᆫ言徵斂ㅣ 多端也ㅣ라嗷嗷ᄂᆞᆫ

衆口愁嘆之聲ㅣ라○돈어두미門戶ㅣ하 니브ᄋᆞ왼져그어즈러이모다시름ᄒᆞ야ᄉᆞᆺ

위리 놋다 奈何黠吏徒漁奪成逋逃 漁奪ᄋᆞᆫ言侵 奪ㅣ如魚獵

然ᄒᆞ야不以法也ㅣ라○엇디라모ᄃᆞᆫ官吏ᅌᅵ무른아오몯고기잡ᄃᆞᆺᄒᆞ야百姓ㅣ逃亡호몰일우ᄂᆞ니오

自喜遂生理花時甘縕袍ㅣ 此ᄂᆞᆫ甫ㅣ見人之逋逃ᄒᆞ고喜獨遂其生業故로暄暖之時예雖不合縕袍ㅣ나猶甘心服之也ㅣ라○生理일윗논이ᄅᆞᆯ내깃거곳픤時節에핫옷니부믈돌히너기노라

○ 釋悶

四海十年不解兵犬戎也復臨咸京 犬戎ᄋᆞᆫ指吐蕃ᄒᆞ니廣德元年에臨京師ᄒᆞ니라○四海예열히도록兵亂ㅣ解散티아니ᄒᆞ니犬戎ㅣ任咸京에와臨ᄒᆞ얏도다

失道非關出襄野揚鞭忽是過

湖城 黃帝將見大隗ᄒᆞ야至襄城之野ᄒᆞ야迷失其道ᄒᆞ니此ᄂᆞᆫ言代宗ㅣ避亂出奔ᄒᆞ니非如黃帝之見賢人而迷道也ㅣ니王敦ㅣ作逆ㅣ어ᄂᆞᆯ明帝騎巴鎭馬ᄒᆞ고齎金鞭ᄒᆞ야至湖陰ᄒᆞ야察軍形ㅣ어ᄂᆞᆯ敦ㅣ追之ᄒᆞ나此ᄂᆞᆫ比代宗之出奔ᄒᆞ니라○길실ᄒᆞ믄襄野로나가매關係ᄒᆞᆫ디아니라채텨믄드ㅣ湖城으로디나가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豺狼塞路人斷絶烽火照夜屍縱橫 豺狼ᄋᆞᆫ喻盜賊也ㅣ라縱橫ᄋᆞᆫ言多也ㅣ라○豺狼ㅣ길흘마ᄀᆞ니ᄃᆞᆫ닐사ᄅᆞ미그칫고烽火ㅣ바미비취여시니주거미하도다

天子亦應厭奔走群公固合思升平 此ᄂᆞᆫ識將相之不虞亂也ㅣ라○天子ㅣᄯᅩ당당이奔走ᄒᆞ믈아쳐러ᄒᆞ시ᄂᆞ

니群臣오진실로外平ᄒᆞ但恐誅求不改轍
몯ᄉᆞ랑ᄒᆞ미맛당ᄒᆞ니라

聞道嬖孽能全生 不改轍요言賦斂之煩ㅣ尙如前日也ㅣ라嬖孽요

指程元振ᄒᆞ니時예用事誤國者ㅣ라○오직誅求ᄒᆞ미녯자최ᄅᆞᆯ고티디아니ᄒᆞ논가진노니니ᄅᆞ기ᄂᆞᆯ드론된嬖孽ㅣ能히사로ᄆᆞᆯ올욋도다

江邊老翁錯料事 眼暗不見風塵清 老翁요甫ㅣ라時世之事와致亂之由ᄅᆞᆯ有難形言故로自激云錯料事而又云眼暗之故로不見風塵之清也ㅣ라ᄒᆞ니라○ᄀᆞᄅᆞᆷᄀᆞᅀᆡᆺ늘근내일혜아료ᄆᆞᆯ그르ᄒᆞ노니누니어드워風塵이ᄆᆞᆯ고ᄆᆞᆯ보디몯ᄒᆞ리로다

解憂

減米散同舟路難思共濟 此ᄂᆞᆫ言減出所賣之米ᄒᆞ야散與同舟之人ᄒᆞ니欲藉衆力ᄒᆞ야挽舟而得利涉也ㅣ라○ᄡᆞ롤ᄃᆞ러내야호비옛사ᄅᆞ몰ᄒᆞᆫ터주어길어려운ᄃᆡ다ᄆᆞᆺ건나가고져ᄉᆞ랑ᄒᆞ노라

向來雲濤盤衆力亦不細 雲濤盤ᄋᆞᆫ灘名ㅣ니極險阻ᄒᆞ니라不細ᄂᆞᆫ言用力之大也ㅣ라○더즈음ᄢᅴ雲濤盤애모ᄃᆞᆫ히미ᄯᅩ젹디아니터라

呀坑瞥眼過飛櫓本無蔕 呀坑ᄋᆞᆫ謂灘口ㅣ如口之呀開也ㅣ라無蔕ᄂᆞᆫ無根蔕니言不固也ㅣ라○입버런ᄃᆞᆺᄒᆞᆫ굴헝올눈ᄀᆞᆷ주ᄒᆞᆯᄉᆞ이예디나오니ᄂᆞ눈비치본ᄃᆡ고고리업도다

得失瞬息間致遠宜恐泥 得失ᄋᆞᆫ言舟之安危ㅣ在瞬息之間也ㅣ라泥ㅣ

눈滯也ㅣ며陷也ㅣ라○얼거나일키나호
미눈곰조ᄒᆞ며숨길ᄉᆞ이로소니변ᄃᆡ가매
陷滯ᄒᆞᆯ가뎌호미맛당ᄒᆞ도다百慮視安危分明曩賢計今
甫ㅣ舟過險灘而有安危之慮ᄒᆞ야因思昔賢
의當患而計其安危ㅣ亦如此也ㅣ라○온
가짓혜아료ᄆᆞ로便安ᄒᆞ며어려우믈보
나네어딘사ᄅᆞ믜혜요미分明ᄒᆞ도다茲
理庶可廣拳拳期勿替茲理ᄂᆞᆫ指計安危ᄒᆞ
다替ᄂᆞᆫ廢也ㅣ라○
이理ᄅᆞᆯ거의可히너비ᄒᆞ야ᄆᆞᄋᆞ매
가져ᄇᆞ리디아니호ᄆᆞᆯ期約ᄒᆞ노라

屛跡

衰年甘屛跡幽事供高卧屛跡은隱跡也ㅣ
라○늘근나해屛

跡ᄒᆞ야 쇼믈 도로혀 디기 노니 幽ᄒᆞᆫ 이러 노피 누워 쇼매 올이 누다 鳥下竹根

行龜開萍葉過 새ᄂᆞᆫ 댓불휘예 ᄂᆞ려 녀거ᄂᆞᆯ 거부븐 말암 니플 여러 디나

ᄂᆞᆺ다 年荒酒價乏日併園蔬課 此ᄂᆞᆫ 言酒價ㅣ 乏絶故로 併課

園蔬ᄒᆞ야 賣以充酒價也ㅣ라○ᄒᆡ 艱難ᄒᆞ야 숤갑시 업슨 날마다 위안햇 菜蔬를 뫼

화 日課를 삼노라 猶酌甘泉歌歌長擊樽破 晉人王敦ㅣ 鐵

如意로 擊唾壺而歌ᄒᆞᆫ대 壺邊ㅣ 盡鈌ᄒᆞ니 擊樽ㅣ 亦此類ㅣ라○오히려 ᄃᆞᆫ ᄉᆡᆷ므를 브

어 머그며 놀애 브로니 놀애 기니 樽올 터ᄣᅡ료라

逃難

五十白頭翁南北逃世難 쉰나인머리셴내南과北세世옛患難올逃避ᄒᆞ야ᄃᆞᆮ니노라

踈布纏枯骨奔走苦不暖 열믠뵈이운뼈에가맛ᄂᆞ니두루ᄃᆞᆮ뇨매심히덥디아니ᄒᆞ도다

已衰病方入四海一塗炭 塗炭ᄋᆞᆫ猶言險難ㅣ라 ○ ᄒᆞ마衰老ᄒᆞ야모매病이뵈야ᄒᆞ로드니四海ᄂᆞᆫᄒᆞᆫ골ᄋᆞ티塗炭ᄒᆞ도다

乾坤萬里內莫見容身畔 하ᄂᆞᆯ콰ᄯᅡ과萬里안해몸容納ᄒᆞᆯᄀᆞ올보디몯ᄒᆞ리로다

妻孥復隨我回首共悲歎 겨집과子息괘ᄯᅩ나ᄅᆞᆯ졷ᄂᆞ니머리도라ᄇᆞ라고다ᄆᆞᆺ슬허嗟歎ᄒᆞ노라

故國莽丘墟鄰里各分散 故國ᄋᆞᆫ指長安也ㅣ라丘墟ᄃᆞ敗ᄂᆞᆫ

而爲丘墟也ㅣ라○녜사던ᄯᅡ히플기여브
으왜엿도소니이운ᄆᆞᅀᆞᆷ도제셔곰ᄒᆞ더가
도다
歸路從此迷涕盡湘江岸 도라갈길흘일
로브터迷失ᄒᆞ
니湘江ㅅ두듥게셔ᄂᆞᆫ
므를업도록우노라

羌村三首 在鄜州ᄒᆞ니時에甫ㅣ
妻子ㅣ在焉ᄒᆞ니라

崢嶸赤雲西日脚下平地 赤雲은謂返照애
雲漢ㅣ皆赤色이
라○노ᄑᆞᆫ블근구룸西ㅅ녀킈
ᄒᆡㅅ바리平地예ᄂᆞ리솟도다
柴門鳥雀噪
歸客千里至 鳥唯噪ᄂᆞᆫ言日暮애栖鳥ㅣ呼
噪而甫ㅣ適來家也ㅣ라○ᄉᆡ
브르ᄒᆞᆫ門에새울어ᄂᆞᆯ도
라오ᄂᆞᆫ客ㅣ千里예오롸
妻孥怪我在驚定

還拭淚 뎌 집과 子息이 내 사랏던 이를 妖恠로 이너기다가 놀라오미 굿거늘 도
로 눈므ᄅᆞᆯ 슷ᄂᆞ다 世亂遭飄蕩生還偶然遂 飄蕩ᄋᆞᆫ 猶飄泊
也ㅣ라○世ㅣ乱ᄒᆞᆫ 저긔 飄蕩ᄒᆞᆷ 맛나니 사라 도라오몰 偶然히 이루라 鄰人
滿墻頭感歎亦歔欷 歔欷ᄂᆞᆫ 悲泣之聲ㅣ라○이웃짓 사ᄅᆞ미 담 머
리예 ᄀᆞ득ᄒᆞ야 서르 感動ᄒᆞ며 嗟嘆ᄒᆞ야 서르 任우려 슬허ᄒᆞᄂᆞ다 夜闌更秉燭
相對如夢寐 바미 다ᄋᆞ거늘 다시 燭을 자바 서르 마조 안조니 ᄭᅮᆷ 곧도다
晩歲迫偷生還家少歡趣 晩歲ᄂᆞᆫ 暮年也ㅣ라○늘근 나해 수
머 사로매 逼迫ᄒᆞ니 지븨 도라와도 즐거온 ᄠᅳ디 젹도다 嬌兒不離膝畏

我復郤去일의놀이ᄂᆞᆫ아히네무루플어희디아니ᄒᆞ야나ᄅᆞᆯ任도로갈가젼

다ᄂᆞ憶昔好追涼故繞池邊樹蕭蕭北風勁撫

事煎百慮蕭蕭ᄂᆞᆫ風吹聲ㅣ라此ᄂᆞᆫ言昔日에常好追涼於樹下而今來則勁

風ㅣ搖落ᄒᆞ야異於昔日故로撫事感時而有憂煎也ㅣ라○ᄉᆞ랑ᄒᆞ니녜서늘ᄒᆞᆫᄇᆞᄅᆞᆯ

追尋ᄒᆞ믈즐겨부리몯ᄀᆞᆺ남기횟도라ᄃᆞᆫ니다니ᄉᆞᄂᆞᆫ蕭蕭ᄒᆞᆫ北風ㅣ셔수부ᄂᆞ니녯

이ᄅᆞᆯ자바셔온가짓혜아료몯글탈노라賴知禾黍收已覺糟床

注糟床ᄋᆞᆫ壓酒具ㅣ라○禾黍ᄅᆞᆯ收斂ᄒᆞ야竝몰아라付糟床에술흐르논고ᄃᆞᆯᄒᆞ마

아ᄂᆞ라如今足斟酌且用慰遲暮이제술브어머구미足ᄒᆞ

나ᄯᅩ배나ᄂᆞᆯ子믈安慰ᄒᆞ리라

群鷄正亂叫客至鷄鬪爭 ᄒᆞᆫᄃᆞᆯ기正히어즈러이우르더니소ᄂᆡ오거ᄂᆞᆯᄃᆞᆯ기사호더라

驅鷄上樹木始聞扣柴荊 ᄃᆞᆯᄀᆞᆯ모라남ᄀᆡ올이고비르수섭나모무늘두드리거늘드로라

父老四五人問我久遠行手中各有携傾榼濁復清 榼ᄋᆞᆫ酒器라○

얼운ᄂᆞᆯ근너덧사ᄅᆞ미내의오래머리녀ᄃᆞᆫ노ᄆᆞᆯ몰고소내졔여ᄅᆞᆷ가진거시잇ᄂᆞ니榼ᄋᆞᆯ기우려니흐리여ᄯᅩᄆᆞᆰ도다

苦辭酒味薄黍地無人耕 심히날오ᄃᆡ술마시사오나오니기장시믈ᄯᅡᄒᆞᆯ사ᄅᆞ미갈리업스니라

兵革既未

息兒童盡東征 兵革ㅣ 이믜 긋디 몯ᄒᆞ니 ᄉᆞ나ᄒᆡ돌히 다 東녀크로 征伐가니라 請爲父老歌艱難媿深情 請ᄒᆞᆫ 얼운ᄂᆞᆫ 그ᄂᆞᆯ 爲ᄒᆞ야 노래 브르노니 艱難ᄒᆞᆫ제 기론 ᄠᅳ들 붓그리노라 歌罷仰天嘆四坐淚縱橫 놀애 ᄆᆞᆺ고 하ᄂᆞᆯ홀 울워러 嗟嘆ᄒᆞ니 四面에 안존 사ᄅᆞ미 ᄂᆞᆫ므를 해 흘리ᄂᆞᆺ다

遣興

昔在洛陽時親友相追攀送客東郊道遨遊宿南山 녜 洛陽애 이실 ᄢᅢ 親ᄒᆞᆫ 버들 서르 조차 東녁 ᄆᆡ해 길헤 가 소ᄂᆞᆯ 보내오노

녀南녁뫼해자라

烟塵阻長河 樹羽成皐間 長河成皐ᄂᆞᆫ皆指洛陽ᄒᆞ니 時예 安史ㅣ陷洛陽ᄒᆞ니라○닋와드트례 長河ㅣ阻隔ᄒᆞ니 羽旗로 成皐ᄉᆞ이예 셰옛도다

回首載酒地 豈無一日還 丈夫貴壯健 慘戚非朱顏 載酒地ᄂᆞᆫ謂洛陽也ㅣ라 朱顏은謂少年也ㅣ라 此ᄂᆞᆫ言後雖得歸舊遊之地나 固可悲其已老也ㅣ라○술시러ᄃᆞᆫ니던ᄯᅡ홀 머리도라보라보니 엇뎌ᄒᆞ롯날 도라갈 저기 업스리오마ᄂᆞᆫ 丈夫ᄂᆞᆫ 壯健호ᄆᆞᆯ 貴히 너기ᄂᆞ니 블근ᄂᆞᆺ치 아니론고ᄃᆞᆯ슬노라

遣興 五首

朔風飄胡鴈慘澹帶沙礫○朔風은北風ㅣ라北녁ᄇᆞᄅᆞ매胡地옛그려기飄來ᄒᆞᄂᆞ니慘澹히모래롤帶ᄒᆞ야안잣도다

長林何蕭蕭秋草萋更碧蕭蕭ᄂᆞᆫ風吹聲ㅣ라○긴수프리ᄌᆞ모ᄇᆞᄅᆞ매불이ᄂᆞ니ᄀᆞ숤프리깃고 또 퍼러도다

北里富薰天高樓夜吹笛焉知南隣客九月猶絺綌南隣客은甫ㅣ라葛之精曰絺오麄曰綌ㅣ라此ᄂᆞᆫ言處富貴者ㅣ忘人之貧困也ㅣ라○北녁ᄆᆞᄋᆞᆯ헌가ᄋᆞ며로미하ᄂᆞᆫ해ᄢᅧ여노ᄂᆞᆫ樓에셔바미ᄃᆞ려부ᄂᆞ니南녁이웃나그내九月에오히려絺綌니비슈믈어느알리오

長陵銳頭兒出獵待明發銳頭兒ᄂᆞᆫ秦白起ᄂᆞᆫ長陵人ㅣ니頭

小而銳ᄒᆞ니以比此出獵者ᄒᆞ다明發ᄋᆞᆫ初曉也ㅣ라○長陵에머리ᄲᅩᄅᆞᆺᄒᆞᆫ男兒ㅣ나

가畋獵호ᄆᆞᆯ새배ᄅᆞᆯ기들워가놋다 騂弓金爪鏑白馬蹴微雪

金爪鏑ᄋᆞᆫ箭鏃之利如金爪也ㅣ라○블근화래金솑돕ᄀᆞᄐᆞᆫ삸미티로소니흰ᄆᆞ리ᄌᆞᆫ간온누놀ᄇᆞᆯ와가놋다 未知所馳逐但見暮光滅歸來

懸兩狼門戶有旌節 ᄆᆞᆯ돌여ᄠᅩᆺᄂᆞᆫ기ᄂᆞᆫ아디몯ᄒᆞ고오직나죗힛비치업서가ᄆᆞᆯ보리러니도라오매두일히ᄅᆞᆯᄆᆡ야ᄃᆞ랏ᄂᆞ니門戶애旌節ㅣ셔엿도다

漆以用而割膏以明自煎蘭摧白露下桂折秋風前 此ᄂᆞᆫ言漆膏蘭桂皆有用故로見割煎摧折之禍ᄒᆞᄂᆞ니以喻有才者ㅣ

必有患ᄒᆞ니라○오시ᄲᅳᆫᄃᆡ이쇼모로베버히이고기르믈볼ᄀᆞᄆᆞ로베제달코蘭ᄋᆞᆫ힌이슬아래믈어디고桂ᄂᆞᆫᄀᆞᅀᆞᆶᄇᆞᄅᆞᆷ앏픠것ᄂᆞ니라

府中羅舊尹沙道尙依然

沙道ᄂᆞᆫ凡拜相ㅣ어든府縣ㅣ載沙填路ᄒᆞᄃᆡ自宮城으로至其第ᄒᆞᄂᆞ니라○府中에녯尹ㅣ羅列ᄒᆞ야ᄂᆞ니모래ᄭᆞᆯ론길히오히려依然ᄒᆞ얏도다

赫赫蕭京兆今為時所憐

赫赫ᄋᆞᆫ盛也ㅣ라蕭京兆ᄂᆞᆫ蕭至忠ㅣ니為京兆尹ㅣ라附太平公主ᄒᆞ야被誅ᄒᆞ니為可憐也ㅣ라○赫赫ᄒᆞᆫ蕭京兆여이제時人의어엿비너교미ᄃᆞ외엿도다

猛虎憑其威往往遭急縛

모딘버미제므의여우믈비겨시나

므ᄃᆡ므ᄃᆡ예ᄲᅥ리믜 요ᄆᆞᆯ맛나ᄂᆞ니라 雷吼徒咆哮枝撐已在

脚 울에우르ᄃᆞ시ᄒᆞᆺ우르노소니남ᄀᆞ 로ᄑᆡ와ᄆᆡ요미블ᄲᅥ히톄에잇도다 忽

看皮寢處無復睛閃爍 믄드시가출ᄉᆞ라자 몰보니ᄯᅩ눈이번들

ᄌᆡᆫ들ᄒᆞ미 업도다 人有甚於斯足以勸元惡 斯ᄂᆞᆫ指 虎ᄒᆞ니

此ᄂᆞᆫ言虎之禍ᄂᆞᆫ止於其身ᅵ어니와惡人 之禍ᄂᆞᆫ非止一身故로爲有甚也ᅵ라○사

ᄅᆞ미일라와甚ᄒᆞ미잇ᄂᆞ니足히ᄡᅥ 곰큰모딘사ᄅᆞᄆᆞᆯ勸戒ᄒᆞ리로다

朝逢富家葬前後皆輝光 아ᄎᆞ미가ᄋᆞ면짓 送葬ᄋᆞᆯ맛보니앏

뒤히다빗 나더라 共指親戚大緦麻百夫行 다親戚 이크다

마ᄅᆞ치ᄂᆞ니緦麻니븐온사ᄅᆞ미行列ㅣ로다

送者各有死不須羨

其強君看束縛去亦得歸山岡 보내리도죄여곰주구미잇ᄂᆞ니구틔여그强盛ᄒᆞ믈브ᄅᆞ디아니ᄒᆞ니라그듸ᄂᆞᆫ얽미여가ᄂᆞᆫ날보라ᄯᅩ시러곰묏부리예가ᄂᆞ니라

分類杜工部詩卷之二